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84호 2025년 01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선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 '이주배경청소년 송년회 메리 글로벌 글램핑'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설동주)는 지난 12월 13일 센터 5층 다목적실에서 '2024 메리 글로벌 글램핑'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4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센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함께 즐기기에 마련됐다. <관련 기사 4면> 송하성 기자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돌파...외국인 88%가 월급 200만원 이상 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외국인 취업자 중 절반가량은 월급이 2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 하러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

한국 통계청은 최근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13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예요.

취업자가 급증한 것은 올 들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취

업자가 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4000명(12.6%) 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48만9000명(51.2%)으로 가장 많았어요. 이어 300만원 이상(37.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4%) 순이었어요. 산업 분야별로 보면 광업과 제조업이 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000명) 등에서도 10만명을 웃돌았어요.

결혼이민자, 재외동포도 역대 최대

상주 외국인 156만1000명 중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도 역대 최대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12만 2000명으로 1년 새 1.7% 늘었고 조선족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도 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어요. 유학생도 작년 대비 6.4% 불어난 20만명으로 집계됐어요. 한국 영주권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외국 국적자들은 14만1000명으로 1년 새 7.6%나 증가했어요. 이는 2012년 6만5000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예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62.1%는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어요.

생활 만족도 높지만 언어는 문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를 물었더니 84.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어요. 전기 대비 3.9%p 증가한 것이예요.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없음(34.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언어 문제(29.8%), 외로움(13.0%), 경제적 어려움(9.3%)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 가운데 언어 문제는 지난해 보다 5.1% 상승했고, 외로움은 3.9% 하락했어요.

'지난 1년간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7.4%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차별받은 원인으로는 '출신 국가'가 54.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국어 능력(31.2%) 외모(9.1%) 등 순으로 집계됐어요.

<러시아어 6면, 영어 6면>

파파야스토리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광명 30~33 과천 34 연천 35 화성 36~40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9, 16, 24, 28, 31, 39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1, 17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6, 13, 18, 21, 37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1, 14, 17 영어(English) 6, 13, 21, 32, 37 일본어(Japanese) 日本語 23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13, 16 생활정보 Information 8, 12, 18, 19, 33, 34 나의 학습 My Study 5, 23, 28 국제교류 2, 26 보건 Health 22 행사 Event 4, 7, 15, 24, 29, 40 교육 Education 10, 30 외국인근로자 Foreign Worker 7, 24, 32 창업 Start a business 9, 17, 37 출입국 Immigration 11, 21, 25, 31, 38 도서관 Library 10, 27 통계 Statistics 1, 6, 39 범죄예방 14 이주배경청소년 4 일자리사업 3 고려인 26 복지 Welfare 31, 33



'경기여성 국제포럼'에서 세계 여성리더와 여성의 기회 확대 논의

경기도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개최...이주여성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도 논의

경기도가 12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열고 노동·이주·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니스린 엘 하세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왕립과학원의 지난 57년간의 성과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온·오프라인 연사의 협력과 참여로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와 돌봄노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윤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학창시절 진로선택부터 구조적 성별격차가 있어 직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이전부터 성별 고정관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리더십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은행 컨설턴트 나안타라 보라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을 제시했으며, 유엔여성기구 아태사무소 국장인 카차 프라이발드는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여성기구의 성평등 증진 가이드를 소개했다.

정 전 장관은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과 GDP가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다. 분리된 여성고용정

책이 아닌 성평등한 노동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 전 분야의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 일 쏠림 문화를 극복해야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니스린 엘 하세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왕립과학원의 지난 57년간의 성과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온·오프라인 연사의 협력과 참여로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와 돌봄노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윤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학창시절 진로선택부터 구조적 성별격차가 있어 직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이전부터 성별 고정관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리더십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은행 컨설턴트 나안타라 보라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을 제시했으며, 유엔여성기구 아태사무소 국장인 카차 프라이발드는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여성기구의 성평등 증진 가이드를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주여성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다뤘다. 다모 의료&문화관광 협동조합 이라 대표는 이

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사례를,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 정책에 대한 도 성과와 대응방향을, 치바대학교 오가와 레이코 교수는 이주민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테오도라 램 연구원은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노동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책연구센터 권지혜 센터장이 STEM 분야 여성 진로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성공회대학교 정연보 교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젠더 편향 해소 방안을, 버지니아대학교 마 힉스 교수는 AI 개발·연구의 젠더 편향 문제를 각각 다뤘다.

폐회식에서는 이번 포럼의 핵심 결과물인 정책 제안이 전달됐다. 정책 제안은 ▲노동시장 내 성평등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적 통합 촉진 ▲과학기술 분야 여성 참여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돌봄-비돌봄 임금격차 지표화, 여성노동자의 가족돌봄 틈새지원, 이주여성 상시 채용 연계 프로그램 구축, 경기도 인공지능 분야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았다. 발표된 정책 제안은 경기도의 여성정책 실행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의 기회 확대와 사회적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제1회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우수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5점 선정해



경기도는 '제1회 경기도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우수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15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동영상 20점과 포스터 74점이 제출됐다. 총 94점의 작품 가운데 전문 심사위원

의 1차 심사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수상작은 15점이다.

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대학교수, 이주민단체 등 심사위원 12명을 선정하고, 전문가 심사와 표절 등의 공개검증 과정을 거쳤다.

심사 결과, 동영상 부문의 '다양성의 선, 굿지 말고 이으세요'와 포스터 부문 '뿌리는 달라도 우리는 친구들'이 각각 대상을 받았으며,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이 선정됐다. 도는 동영상 대상 200만 원, 포스터 대상 60만 원 등 각 수상작에 대해 총상금 7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양성의 선, 굿지 말고 이으세요'는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활용해 만든 영상으로, 이주민의 존재와 다양성

앞에 우리 사회가 선을 굿지 않고 서로 있는다면 함께 살아가는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스터 부문 대상은 하남시 망월초등학교 3학년생이 수상했다. '뿌리는 달라도 우리는 친구들'은 외국에서 온 친구들의 뿌리는 서로 달라도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은 차별 없이 모두 친구라는 내용을 손 그림으로 표현해 주제에 대한 전달력이 명확하다는 평을 받았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향한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 이제 이중언어를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부모와 함께 하는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종강식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12월 8일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종강식을 센터에서 진행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은 총 7개반으로 영어 1개반, 베트남어 2개반, 중국어 4개반이 운영됐다. 상반기 수업은 3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16회 수업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8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 15회, 연중 총

31회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의 1부는 각 반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다 함께 모여 종강식을 진행했다.

종강식에서는 인사말씀, 감사 소개, 우수사 표창, 장려상, 우수상, 개근상 전달식 및 각 반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후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장려상 총 13명, 우수상 총 15명, 개근상 총 25명이 수상했다. 수

료증을 받은 학생은 총 78명이다.

학생들의 발표 시간에는 영어반 ‘당신은 나의 태양’, 베트남어 A반은 cô và mẹ-선생님과 엄마와 독창 및 loi chao buoi sang-아침 인사하는 말, 베트남어 B반은 독창 BA NGON NEN LUNG LINH-깜박이는 풋볼 세 개 및 독창 THAN SINH PHU MAU-아버님과 어머니 등이 진행됐다. 중국어 A,B,C반과 HSK반도 한 해 동안 열심히 배운 장기

를 중국어로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올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아이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이중언어를 더 좋아하게 됐다”며 “이중언어 교육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된다. 2025년 수업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2025년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은 3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시, 공공부문 실무경험 쌓으며 경력 형성하고 직업 역량 강화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49명을 모집한다.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은 참여자가 공공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직업역량을 강화해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025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으로 36개(21개 부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카운슬러 ▲일자리발굴단 운영 ▲창업지원컨설턴트 ▲새빛하우스 접수리 지원 코디네이터 ▲미술관 흥

보디자이너 ▲수원컨벤션센터 임대마케터 등 실무 경험·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는 일자리다. 공공기관·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담당 부서별 채용 계획에 따라 1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을 검색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사람은 1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일하게 된다. 수원시 생

활임금(1시간당 1만 1290원)이 적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질 높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실무경험을 쌓고, 직업역량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11월에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일제(주 5일, 40시간) 78명, 시간제(주 20시간) 40명 등 총 118명을 모집한 바 있다.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이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공공외교단 수료식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23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공공외교단(SCVA) 11기’ 수료식을 열고, 단원 17명에게 수료증을, 우수활동자 4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수원시 공공외교단 11기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지역이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을 지원했다. 지난 3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지은 기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외로웠어요. 그 때 학교에서 나에게 다가와 준 친구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만난 친구들을 잊을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센터도 너무나 감사해요”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발표 방현림 학생.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설동주)는 지난 12월 13일 센터 5층 다목적실에서 ‘2024 메리 글로벌 글램핑’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4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센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됐다.

설동주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었다”며 “한해 동안 열심히 센터 교육에 참여하고 성장한 이주배경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 ‘2024 송년회 메리 글로벌 글램핑’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날 행사는 후원단체 및 운영위원 감사장 수여, 우수 참여자 시상, 활동영상 시청,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된 1부 송년회에 이어 2부는 전진여, 김서은 학생의 사회로 치어리딩 공연이 먼저 펼쳐졌다.

본격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장기를 선보인 2부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청소년들의 열정이 빛났다.

다모아 학교 댄스와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발표, 기타연주, 복싱동아리, 전문팀 공연 등의 행사가 1시간 동안 펼쳐졌으며 센터의 직원과 강사들은 하나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열심히 노력한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2023년 글로벌 송년회에 이어 2024년 메리 글로벌 글램핑 컨셉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다양한 음식으로 다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마무리됐다.

송하성 기자

한국 명문대에서 학사 학위 받고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의 꿈 이룬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학사 학위 과정 운영...학비도 저렴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꿈은 뭘까요? 안정적인 비자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예요. 너무 간단하고 분명한 이주민들의 소망에 한국 정부도 최근 새로운 비자 정책을 발표하며 화답했어요. 하지만 E-7-4 비자 취득을 위한 K-point 정책과 F-2-R 비자 취득을 위한 지역특화비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은 어떤가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 적응과 취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한국어 능력 향상과 대학교 졸업 학력이예요. 하지만 이주민이 회사 일과 한국어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더구나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2가지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이 탄생했어요!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 가능해?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한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자율학부를 신설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대학교는 모든 수업과 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가능해요. 학비는 어떨까요? 한국의 다른 대학교들의 연간 학비가 700만~900만원인 것에 비해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율학부는 모든 학생에게 50% 장학금을 부여해 연간 학비가 151만2천원에 불과해요. 또한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먼저 무전공으로 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과정은 대학 생활 적응과 기초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배워요. 주요 교과목으로는 대학한국어1과 2, 한국사회와 대학 이해, 전공탐색과 학습전략, 글로벌 리더십

등이예요. 학생들은 진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기 전, 진로 설계와 다양한 전공 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후 2~4학년에는 IT, 전자정보, 경영, 관광, 한국어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여 심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어떡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국어를 못해도 입학할 수 있어요! 한국어 실력과 상관 없이 합격을 통보 받으면 입학 전에 이 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디딤돌 과정 즉, 한국어연수를 받을 수 있어요. 6학점의 학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좋아요. 입학 후에는 대학한국어 수업과 한국어연수 과정을 번갈아 들으며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 수업을 따라가려면 실질적으로 토픽 3급 이상의 실력이 필요해요. 만약 학생이 토픽 4급을 취득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뭐가 좋아?

그럼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국의 명문사학인 경희대학교가 모체이고 당연히 4년제 학위를 인정받아요. 특히 학사 학위를 인정받으면 E-7-4 비자를 취득하는데 점수 20점을 얻을 수 있고 한국어 실력도 대학교 졸업 과정에서 토픽4급은 무난하게 취득할 수 있어서 120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어요. E-7-4 비자 취득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지요.

요즘 외국인근로자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특화비자의 경우에도 한국 대학교 졸업장을 가진 외국인은 가점을 받아 매우 유리해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베트남 출신 이지는 씨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저 스스로 한국 사회에 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며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특히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장학금 혜택과 의료비 감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원래 학비가 저렴하지만 글로벌자율학부 학생들은 입시장학, 생활장학, 성적장학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최근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는 신입생과 편입생의 97.3%가 장학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글로벌자율학부 입학생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50%의 장학 혜택을 제공받아요. 또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에게 경희대학교병원 및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10%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이주민들에게 의료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글로벌자율학부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융합교육을 제공해 회사 사장님과 동료들이 인정하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어요.

입학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율학부는 2025학년도 1학기 1차 신입생 모집을 2025년 1월 14일까지 진행해요. 2차 모집은 2월 14일까지예요. 원서접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khcu.ac.kr)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입학원서 작성, 전형자료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면 돼요.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율학부 서진숙 교수는 “우리는 이주민과 외국인 학생들이 학문과 실무 역량을 키워 글로벌 사회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khcu.ac.kr) 또는 입학상담전화(02-959-0000)로 확인해 보세요.

(중국어 28면, 일본어 23면)

송하성 기자



수원시청 1899-3300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031-247-1324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1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070-7523-3686 수원교육지원청 031-250-1335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95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31-7864 범죠희고 112 수원서부경찰서 031-8012-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2024 Immigrant Residence Status and Employment Survey Results' Foreign workers exceed 1 million...88% of foreigners earn more than 2 million won per month

As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surpassed 1.56 million, the largest number ever,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orking in Korea has also surpassed 1 million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about half of the foreign workers have a monthly salary in the 2 million won range.

Foreign workers who came to Korea to work

Statistics Korea recently released the '2024 Immigrant Residence Status and Employment Survey Results' and announced that as of May this year, the number of foreigners aged 15 or older residing in Korea was 1,561,000, an increase of 9.1% (130,000) from last year. This is the largest number ever.

The reason for the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s

that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ho received a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Visa' this year increased by 34,000 (12.6%) from a year ago to 302,000.

The average monthly wage level they receive is 2 million won or more but less than 3 million won, with 489,000 people (51.2%), followed by 3 million won or more (37.1%) and 1 million won or more but less than 2 million won (8.4%). By industry, mining and manufacturing were the most with 461,000 people, followed by wholesale/retail/accommodation/food service (191,000 people) and business/individual/public service (144,000 people) with over 100,000 people.

Marriage immigrants and overseas Koreans are also at an all-time high

Among the 1,561,000 resident foreigners,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is the highest ever.

Th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who married Koreans increased by 1.7% in one year to 122,000, and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including ethnic Koreans of China and Koryo people, increased by 4.1% from the previous year to 402,000.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lso increased by 6.4% from last year to 200,000.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with permanent residency in Korea, including Chinese and Vietnamese, increased by 7.6% in one year to 141,000. This is more than double the 65,000 in 2012. 62.1% of foreign nationals with permanent residency said they plan to acquire Korean citizenship in the future.

High life satisfaction but language is a problem

When asked about the satisfaction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84.3% responded that they were 'satisfied', which is a 3.9%p increase from the previous quarter.

The most common difficulty in living in Korea was none (34.7%), followed by language problems (29.8%), loneliness (13.0%), and economic difficulties (9.3%). Among these, language problems increased by 5.1% compared to last year, and loneliness decreased by 3.9%. When asked, "Have you experienced discrimination in the past year?" 17.4% answered, "Yes." The most common reason for discrimination was "country of origin" at 54.5%, followed by Korean language ability (31.2%) and appearance (9.1%).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евысило 1 миллион... 88% из них зарабатывают более 2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месяц 이민자 체류실태 안내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превысило 1,56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Также впервы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стране достигло 1 миллиона. При этом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иностранных соотрудников получают зарплату в диапазоне 2-3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месяц.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приехавшие на заработки в Корею

Согласно недавн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данным «Состояние проживания и занятости иммигрантов в 2024 году» от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май 2024 года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ет 1,561 млн иностранцев старше 15 лет, что на 9,1% (или 130 тысяч)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то рекордный показатель.

Рост числа трудоустрое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объясняется увеличением выданных виз категории E-9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В 2024 году таких работников стало 302 тысячи, что на

12,6% (3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Что касается уровн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больше всего иностранных соотрудников (51,2% или 489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лучают от 2 до 3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месяц.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те, кто зарабатывает более 3 миллионов вон (37,1%), и работники с зарплатой от 1 до 2 миллионов вон (8,4%).

Браки с корейцами и рост числа убежденных корейце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трасли, больше всег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занято в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и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461 тысяча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оптовая и розничная торговля, гостиницы и рестораны (191 тысяча человек), а также бизнес-услуги, частный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ервис (14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прожив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1,561 млн) также зафиксирован рекордный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мигрантов по браку,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Число мигрантов по браку, то есть иностранцев, вступивших в брак с корейскими гражданами, достигло 122 тысяч человек, что на 1,7%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включая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из Китая и бывшего СССР, составили 40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что на 4,1%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также увеличилось на 6,4% и достигло 200 тысяч человек.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 видом на жительство из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Китай и Вьетнам, составило 141 тысяч человек, что на 7,6%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Это больш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превышает показатель 2012 года, когда обладателей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было 65 тысяч. Средне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 видом на жительство

62,1% заявили, что планируют получить гражданство Кореи в будущем.

Уровень жизни и проблемы адаптации

На вопрос о степени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жизнью в Корее 84,3% иностранцев ответили, что довольны. Это на 3,9%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оказались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29,8%) и чувство одиночества (13,0%). При этом 34,7% респондентов сообщили, что не испытывают каких-либо трудностей.

На вопрос о том, сталкивались ли они с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17,4% иностранцев ответили утвердительно. Среди причин дискриминации чаще всего упоминались страна происхождения (54,5%),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31,2%) и внешность (9,1%).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재수원교민회 연합행사 개최 '눈길'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12월 14일 센터에서 ‘세계이주민의날 기념 재수원교민회 연합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수원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2024년을 따뜻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배 수원특례시 북

지여성국장과 10개국의 교민회원,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점검위원 등 모두 16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먼저 필리핀, 네팔, 베트남, 몽골, 인도, 미얀마, 한국 등 7개국의 다양한 음식을 즐겼으며 기념식을 통해서 세계이주민의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장기자랑과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해서 14개 기관 및 개인이 후원한 상품들을 나누며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특히 의료 분야 등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와 협약을 맺은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이주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개관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교민회연합행사는 이주민들이 각자의 문화를 조화롭게 활용

해 뜻깊은 시간이었다. 양해규 센터장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수원에 거주하는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교민회가 서로 교류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음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처음 진행하는 교민회 연합행사가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잘 진행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9 근로자 산업현장 적응 돕는 '특화훈련' 강화... '비전문외국인 특화훈련센터' 확충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어떤 사업에 얼마의 금액이 사용되는지 발표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은 사업과 예산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의 근로를 위해 어떤 분야에서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숙련인력 양성

E-9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인 한국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요.

현장 자체가 낯설고 각종 기계나 공

구도 처음 보는 것인데다가 사용법도 모르지요. 더구나 일과 생활을 한국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①E-9 특화훈련: 이 프로그램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역 인력개발원 또는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 E-9근로자에게 기본 직무기술을 교육하는 것이예요. 제조업의 다양한 기계 및 공구 사용법과 직무기초를 훈련받게 되며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돼요. 특화훈련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

할 수 있어요. 보통 4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내년에 6000명을 교육할 계획이에요. 비전문외국인 특화훈련센터도 내년에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②폴리텍 한국어훈련: 한국의 폴리텍 대학에서는 원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 외국인을 참여시켜 기술 한국어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범 사업으로 외국인 50명이 참여할 수 있어요.

③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지원: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기업 탐색, 직무 훈련, 비자 전환 등의 일을 혼자 하기가 어렵지요. 이에 고용노동

부는 내년에 유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일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④안전보건교육 및 상담지원: 고용노동부는 내국인보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에 안전보건 교육을 체계화하고 확대할 계획이에요. 다국어 교육컨텐츠도 더 많이 개발하려고요. 또한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상담 등 지원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중국어 24면, 러시아어 18면, 영어 32면> 과파야스토리

'사통팔달 오산시'...대중교통 노선 확충 나선다

오산시, 철도·버스 노선 신설 추진...김포공항 리무진버스 운행 재개



오산시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 확충을 위한 교통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서울을 비롯한 화성, 수원, 성남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여 촘촘한 교통망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초부터 대중교통 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방문해 철도·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해왔다. 특히 세교2지구와 동오산 지역 아파트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라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신설을 요구

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오산→서울역 광역버스 신설 △성남 야탑·판교→동탄역·동탄호수공원 →동오산·운암지구 간 광역버스 신설·개편 △세교2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김포공항버스 개통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산→서울역 광역버스 신설은 지난해 7월 세교2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난을 해결할 중요한 대책으로 논의됐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신설이 확정됐다.

2025년 상반기 운행 예정인 이 노선은 세교지구 21단지 행복주택을 기점으로 세마역, 세교 1·2지구를 경유해 서울로 직행한다. 하루 24회 운행되는 이 버스는 세교 1·2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오산역~김포국제공항 리무진버스도 지난 20일 운

행을 재개했다. 이를 통해 김포공항과의 연결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세교2지구의 교통수요 증가에 맞춰 버스 노선을 개편한 데 이어, 운암단지과 동오산 지역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나섰다. 성남 판교·야탑역까지 운행하는 8302번 광역버스를 신설했고, 8301번 버스는 운암단지까지 연장됐다. 또한, 60번 버스는 세교2지구 입주 초기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7·5번 버스는 서1지구로 종점을 변경했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대중교통 신설과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 교통 확대와 개편에 집중해 사통팔달 오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모든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구입 지원

오산시는 2025년부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지원을 관내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해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오산시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11억원의 관련 사업 예산을 새로 성했다.

지원 대상은 11세에서 18세(2007년생~2014년생)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이다. 시는 특히 지원 대상에 외국인 청소년도 포함했다.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청소년이 공평하게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매월 1만 4000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 복지로 **함여되는 129**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위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추위질수록 심해지는 생활고를 덜 수 있도록
힘들다 말하기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함께 하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란?

-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친 가구
- 빛이나 시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가구
- 겨울철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노숙인과 쪽방, 노후 고시원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 독거 어르신, 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도움 요청하는 방법

대표창구 □ 사·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24시간 국번없이 129)

나와 이웃의 어려움을 쉽고 빠르게 신고 □ "복지위기알림" 앱(QR코드 스캔 또는 플레이 앱스토어 다운로드) □ 복지포(www.bokjiro.go.kr) → 복지위기알림

사업별 상담번호 □ 금융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난방 | 에너지바우처(☎1600-3190) □ 주거 | 내마이홈(☎1600-1004) □ 돌봄 | 긴급돌봄(☎1522-0365) *서울/경기/충남 제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 자녀생활서비스 대상자 모집

교육방법 방문교육 지도사가 각 가정에 직접 방문 1:1 교육진행 / 주 2회, 회당 2시간(20분 휴게시간 포함)

지원대상 및 교육내용

<p>한국어교육</p> <p>대상 결혼이민자 (초기입국 5년이하) 중도입국자녀</p> <p>기간 80회기</p> <p>내용 - 단계별 한국어교육 - 어휘, 문법, 화용, 문화</p>	<p>부모교육</p> <p>대상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임신부 포함)</p> <p>기간 40회기(생애주기별 3회 지원)</p> <p>내용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성장,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등)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p>	<p>자녀생활서비스</p> <p>대상 만3~12세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p> <p>기간 80회기</p> <p>내용 - 학습지도, 독서코칭, 숙제지도 등 - 사회·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지도 등 ※ 만6세~8세 우선 지원</p>
--	--	--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1. 센터회원등록 및 서비스 신청(방문 또는 전화)
2.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3. 정부지원 소득유형 통지 받은 후 서비스 이용(대기기간 발생할 수 있음)
※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적용(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상지원)
※ 기존 가정 서비스 종료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연계

교육문의 가족지원 2팀 방문교육담당 ☎ 031-372-1335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83(오산시가족센터)

가족센터 오산시 가족센터 OSANSI FAMILY CENTER |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약물 낭비 줄이는 아이디어로 한국에서 상금 받고 비자도 받고!

'20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외국인 창업팀 8개사, 데모데이에서 성과 발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면 흔히 E-9 비자 취득을 생각하는 외국인이 많지요.

하지만 E-9 비자를 갖고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것 보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또는 기술창업(D-8-4) 비자를 받고 작은 회사지만 기업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를 개최했어요.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회예요. 외국인 창업팀40개사와 국내외의 벤처투자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어요.

2016년에 시작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법인 설립 및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전세계 114개국에서 총 1,716팀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40개팀을 최종 선정하였고, 이들은 9월에 한국에 입국해 약 3개월 반 동안 국내 창업기획자의 보육을 받으며 이번 데모데이를 준비했어요.

이날 데모데이에서는 사업화 성취도 평가와 창업기획자별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상위 8개팀이 창업 아이템과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총 40만달러의 상금을 받을 상위 5개팀을 최종 선정했어요.

상금 15만달러를 받을 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팀으로는 'Polymerize'(인

도)가 선정됐어요. 10만달러 상금 받은 2위는 'Nanodropper'(미국), 3위는 'Open Energy'(포르투갈), 4위는 'Gimme Savor'(스페인), 5위는 'Murple'(중국)이 차지했어요.

1위 스타트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AI 소재 정보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보통 사람들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예요.

하지만 2위 스타트업은 약물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했고 4위 스타트업도 육고기, 해물, 치즈 등의 맛을 내는 식물 기반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이에요. 5위 스타트업도 연구자들이 논문을 약 5배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 편집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때요? 꼭 어려운 분야를 다루지 않아도 자신의 아이디어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이날 시상식에서는 상금을 받는 5개팀을 포함해 상위 20개팀을 발표했으며, 이들에게는 3개월간 사업화 자금지원과 추가 보육 등의 후속 지원을 제공해 한국 정착과 성장을 도울 계획이에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졌다면 외국인주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17면, 러시아어 37면, 태국어 17면, 영어 37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减少药物浪费的创意, 获奖并取得韩国签证! ... "2024年K-Start Up Grand Challenge"

来韩国工作的话, 想取得E-9签证的外国人很多吧。

但是比起拿着E-9签证在韩国工厂工作, 获得"创业韩国特别签证"或技术创业(D-8-4)签证, 虽然在小公司但是作为企业家在韩国工作怎么样呢?

中小风险企业部今年12月11日在首尔coex举行了"2024年K-Start Up Grand Challenge"演示日。

演示日是挑战创业的人们展示自己成果的大会。

40家外国创业团队和国内外风险投资家等100多人参加了此次活动。

2016年开始的"K-Start Up Grand

Challenge"是支援海外优秀创业企业设立国内法人及定居韩国的项目, 今年来自全世界114个国家的1716个队申请参加。

经过文件审查和发表评价, 最终选定了40个队, 他们于9月入境韩国, 接受了国内创业企划者三个半月的保育, 准备了此次演示日。

在当天的演示日上, 通过事业化成就度评价和各创业企划者自行预选选出的前8个队发表了创业项目和事业计划, 最终选定了共可获40万美元奖金的前5个队。

获得15万美元奖金的今年最佳

外国人创业团队是"Polymerize"(印度)。获得10万美元奖金的第2名是《Nanodropper》(美国), 第3名是《Open Energy》(葡萄牙), 第4名是《Gimme Savor》(西班牙), 第5名是《Murple》(中国)。

排名第一的创业公司是一家开发基于云盘的AI材料信息学软件的公司。这是一般人很难挑战的领域。

但是第2名的创业公司研究出了减少药物浪费的方法, 第4名是生产具有肉、海鲜、奶酪等味道的植物基础蛋白质产品的创业公司。

排名第5的创业公司是开发帮助研

究者5倍快速完成论文的文件编辑平台。

怎么样? 不一定要在自己的领域, 你是否在努力用自己的创意改变世界?

在当天的颁奖典礼上, 公布了包括获奖的5个队在内的前20个队, 并向他们提供3个月的事业化资金支援和追加保育等后续支援, 帮助他们在韩国定居和成长。

如果具有挑战性和革新性的想法, 外国居民也不要放弃, 请挑战吧!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이시왔어요~"

전입신고부터 아이전학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 우편물 주소
- 전입신고
- 주택임대차
- 확정일자
- 아이 전학

이시한 곳으로 우편물 받는 법!

**3개월간 무료로
바뀐 주소로 우편을 배달받아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편물 발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잘못된 우편 전송을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인터넷 우체국, 우체국 방문,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참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입신고 시 함께 지참하면 좋아요.
수수료	· 동일권역 최초 3개월 무료 · 3개월 연장 시 4000원 · 타권역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서비스 기간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세요!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이시한 날부터 2주 내로
전입신고 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전입신고 신청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민원24 로그인 (www.gov.kr) 전입신고 클릭 작성 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서 작성 창구접수 * 신분증 지참

확정일자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임차인 권리 꼭 지켜주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 임차인(전월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월세 37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 800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ims.molit.go.kr)에서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대차 계약서/신분증 지참

TIP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약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

이시 후 아이 전학 절차는 어떻게?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참여해요!

구리시가족센터, '기초학습 지원사업' 수료식 진행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는 2023년부터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인 '기초학습지원'은 다문화가족(외국인, 난민 가족 포함)의 미취학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후 필요한 기초학습(읽기, 쓰기, 셈하기)을, 초등 저학년 아동에게는 기초학습과 더불어 독서와 사회를 지원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올바른 또래 관계 형성을 돕고,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과 가정 내 학습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리시가족센터는 지난 11월 29일 센터 내부와 외부 기관(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한 23명 아동의 2024년도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료식은 한국마사회 구리지사에서 '크라운과자집'을 후원해주어 더욱 풍성한 수료식이 됐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기초학습지원'은 2025년도에도 센터 구리시가족센터 내 미리배움교실과 요청이 있는 기관에서 주 2회(회기당 30~40분씩)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센터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가 시작되면 담당자와 전화 예약(070-8895-9262, 070-4149-4909) 후 상담을 거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윤성은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결손을 막고 학교생활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기초학습 지원사업은 구리시가 다문화가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포용력 있는 도시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구리시, 검배체육문화센터 등 개관식...18일부터 시범 운영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2일 오전, 검배체육문화센터와 수택평생학습센터의 준공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

2022년 7월 착공하고 총사업비 215억 원이 투입된 검배체육문화센터는 연면적 5,246㎡,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했으며, 지상 1층에는 주차장, 2층에 25m 6레인 수영장, 3층 다목적체육관과 GX룸, 4층 수택평생학습센터 등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문화생활을 위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관에 따라 다문화가족들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약 200명 참석했으며, 검배체육문화센터 테이프 커팅과 수택평생학습센터의 제막식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감사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시설 라운딩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검배체육문화센터는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다양한 체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전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과 주민 간 소통·교류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배체육문화센터는 이달 18일부터 시설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회원 신청을 받아 2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의 겨울방학, 구리시의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도서관별로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창도서관**은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제 도서를 선정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글쓰기 실력을 향상하는 수업 '내 맘대로 짧은 글쓰기', 그림책 속 장면을 미술로 표현하는 '독서랑 미술놀이', 겨울 날씨의 특징과 과학원리를 이해하는 '겨울로 과학여행', 요리주제 관련 책을 읽고 요리하는 '맛있는 독서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평도서관**은 내년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그림책 감상을 클레이아트로 표현하는 '귀염뽀짝! 그림책이랑 점토랑', 독서와 요리를 결합한 '맛있는 북스토랑', 퍼즐과 보드게임을 통해 고대국가의 문화를 배우는 '한반도 고대 문화유산 탐험대', 연극 놀이

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 '책과 함께 떠나는 연극 놀이터', 과학원리를 실험과 관찰로 배우는 '원리 쑥쑥 과학실험실', 책을 읽고 분석한 후 영상편집 앱을 활용하여 책 소개 영상을 제작하는 '나도 크리에이터! 북트레이러 만들기'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한다.

▶**교문방정환도서관**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동화책과 놀이를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하는 '동화야 놀자', 재미있는 실험을 스스로 해보며 과학적 호기심 충족 및 원리를 깨치는 '스토리텔링 과학탐구', 책과 연계한 음식 만들기를 통해 창의력 향상 및 즐거운 활동시간을 가지는 '동화 읽고 요리활동',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드로잉 기초과정을 배우며 나만의 소품을 제작해보는 '디지털 드로잉' 등 6강좌를 운영한다. 다문화가족도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갈매도서관**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어린이들의 토론과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저학년을 위한 갈래별 글쓰기'와 '토론으로 완성하는 글쓰기 교실', 역사 속 유물과 인물로 한국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유물로 알아보는 조선시대 역사'와 '역사가 보이는 우리나라 왕 이야기', 교과서 속에 수록된 클래식과 연계 활동으로 인문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과서 클래식과 인문학 한 스푼', 유아들이 그림책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놀 수 있는 '그림책으로 떠나는 상상 놀이터', 환경특화 프로그램인 '지구를 부탁해! 환경보드게임'을 운영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gurilib.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도서관별로 상이하다.

김영의 기자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về nước trong thời gian ân xá, và lý do có thể tái nhập cảnh sau một năm 미등록 외국인 자진출국기간 연장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sẽ gia hạn 'Thời gian ân xá tự nguyện về nước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dự kiến áp dụng cho đến ngày 30 tháng 11, thêm hai tháng cho đến ngày 31 tháng 1 năm 2025.

Việc gia hạn này nhằm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hơn cho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về nước đang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đặt vé máy bay về nước do những kỳ nghỉ cuối năm và đầu năm mới.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về nước trong thời gian ân xá có thể được ▲ miễn tiền phạt theo thời gian cư trú bất hợp pháp và ▲ miễn hạn chế nhập cảnh.

Tuy nhiên,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trái phép từ ngày 30/9 năm nay, người nhập cư trái phép, người sử dụng hộ chiếu giả, người phạm tội và người không chấp hành lệnh xuất cảnh đều bị loại trừ trong đợt ân xá này.

Miễn hạn chế nhập cảnh, có đúng không?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thắc mắc liệu người

nước ngoài tự nguyện xuất cảnh trong thời gian ân xá có thực sự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miễn hạn chế nhập cảnh hay không. Đúng là việc miễn hạn chế nhập cảnh là có thật. Nhưng điều này có nghĩa là không nằm trong danh sách hạn chế nhập cảnh của Bộ Tư pháp.

Khi một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xuất cảnh và nộp đơn xin cấp visa tại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ở nước sở tại, bộ phận phụ trách cấp thị thực vẫn có thể xác nhận thông tin cư trú bất hợp pháp của người đó tại Hàn Quốc mặc dù tên của người đó không được liệt kê trong mục danh sách hạn chế nhập cảnh. Vì vậy, lãnh sự quán phụ trách visa sẽ có thể từ chối cấp visa.

Sẽ bị cấm nhập cảnh trong bao nhiêu năm?

Ngay cả khi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xuất cảnh, họ vẫn có thể khó khăn trong việ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rong 5 năm.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hỏi có cách nào khác không, nhưng nếu vì lý do nhân đạo thì có thể nhập cảnh sớm hơn.

Ví dụ, nếu trường hợp người chồng đến Hàn Quốc cùng vợ đang học cao học ở Hàn Quốc, sau đó trở thành người bất hợp pháp và tự nguyện về nước, thì người chồng sẽ khó có thể quay lại Hàn Quốc trong vòng 5 năm. Tuy nhiên, nếu trước khi người chồng tự nguyện về nước mà người vợ mang thai, và trong thời gian người chồng về nước và người vợ sinh con và phải tự mình đi học, nuôi con. Nên trong trường hợp này, được xem là có lý do nhân đạo.

Tất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này cũng vậy, người chồng ban đầu đã bị từ chối cấp visa. Nhưng sau đó người vợ đã không bỏ cuộc và nộp đơn khiếu nại lên Ủy ban Chống Tham nhũng và Dân quyền.

Ủy ban Chống tham nhũng và Dân quyền đánh giá việc cấp visa cho người chồng là phù hợp nên đã người chồng đã có thể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hỉ sau một năm tự nguyện về nước. Trừ khi có những lý do nhân đạo rõ ràng và xác đáng như trên, nếu không trong vòng 5 năm sẽ rất khó để có thể quay lại Hàn Quốc.

<한글 기사 31면>

파파야스토리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ซึ่ง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ในช่วงระยะ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ออก โดยสมัครใจพิเศษ, เหตุผลที่กลับมาใน รอบ 1 ปี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1년 만에 돌아온 이유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ตัดสินใจขยายเวลา "ระยะ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พิเศษ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ซึ่งมีกำหนด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จนถึงวันที่ 30 พฤศจิกายน เพิ่มอีก 2 เดือนจนถึงวันที่ 31 มกราคม 2025

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ในครั้งนี้เพื่อ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มีโอกาส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ได้ด้วยตนเองมากขึ้น และพิจารณาสถานการณ์ที่การจองตั๋วเครื่องบินกลับประเทศ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 เนื่องจากวันหยุดสิ้นปีและวันหยุดปีใหม่เป็นต้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ที่สมัครใจ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พิเศษ จะได้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ต่างๆ เช่น ▲ การยกเว้นค่าปรับสำหรับ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และ ▲ 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หลังจากวันที่ 30 กันยายน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และผู้ลักลอบเข้าเมืองโดยผิดกฎหมาย, ผู้ถือ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ปลอม, ผู้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ทางอาญา และผู้ที่ไม่ปฏิบัติตามคำสั่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จะไม่รวมอยู่ด้วย

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จริงหรือไม่?

ไม่?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สงสัยว่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ดินทางออกจากเกาหลีในช่วงระยะ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พิเศษนั้นจะได้

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จริงหรือไม่ ในความเป็นความจริงแล้วเป็นเรื่องจริงที่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สิ่งนี้เป็นเพียงเพราะไม่อยู่ในรายชื่อ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เมื่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ที่สมัครใจออกจากเกาหลีไปยื่นขอวีซ่าที่สถานทูตเกาหลีเพื่อเดินทางกลับเกาหลีจาก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 เจ้าหน้าที่กงสุลที่รับผิดชอบวีซ่า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ได้ว่า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เกาหลียังคงอยู่แม้จะไม่มีชื่ออยู่ในรายการก็ตาม ดังนั้นเจ้าหน้าที่กงสุลที่รับผิดชอบวีซ่าจะปฏิเสธการออกวีซ่า

จะถูกห้ามเข้าประเทศกี่ปี?

แม้ว่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จะสมัครใจ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แต่โดยทั่วไปแล้วพวกเขาจะ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ให้เข้าเกาหลีเป็นเวลา 5 ปี 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ที่ถามว่าไม่มีทางอื่นเลยหรือ แต่หากมี

เหตุผลด้านมนุษยธรรมก็สามารถเข้าประเทศได้เร็วขึ้น ตัวอย่างเช่น หากสามีที่มาเกาหลีกับภรรยาที่กำลังศึกษาระดับบัณฑิตศึกษาในเกาหลีกลายเป็นผู้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และสมัครใจ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ก็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สำหรับเขาที่จะกลับเข้าประเทศอีกครั้งภายใน 5 ปี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ก่อนที่สามีจะ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 ภรรยาตั้งท้องและในขณะที่สามีกลับ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 ภรรยาก็ได้ให้กำเนิดบุตร และต้องเรียนพร้อมทั้งเลี้ยงดูลูกด้วยตัวเอง ในกรณีนี้ ใครๆก็มองว่าเป็นเหตุผลด้านมนุษยธรรม.

แน่นอนว่าในกรณีนี้เช่นกัน วีซ่าของสามีจะถูกปฏิเสธในตอนแรก แต่ภรรยาที่ไม่ยอมแพ้และยื่นเรื่องร้องเรียนต่อ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สิทธิพลเมือง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ต่อต้าน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สิทธิพลเมืองพิจารณาเห็นสมควรที่จะออกวีซ่า และใ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มีกรณีที่บุคคลเข้าเกาหลีหลังจาก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1 ปี การกลับเข้าเกาหลีอีกครั้งภายใน 5 ปี นั้นยังคง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เว้นแต่จะมีเหตุผลด้านมนุษยธรรมที่ชัดเจนและสมเหตุสมผล

<한글 기사 31면>

파파야스토리



우수한 아이돌봄서비스로 체계적인 보호 및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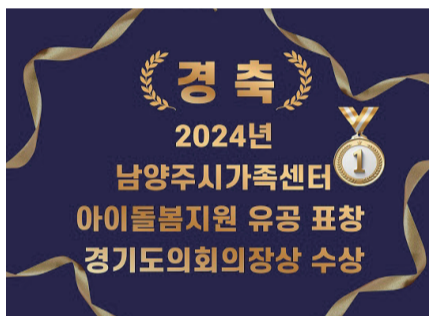
남양주시가족센터, 경기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유공 표창 받아

2024년 경기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유공 표창 수여식

일시: 2024. 12. 20.(금)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3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아이돌봄지원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 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와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아이돌봄지원사업 유공 표창 수여식을 열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지사 표창은 가평군 윤다솔 주무관 등 공무원 2명, 김포시 임춘미 등 아이돌보미 5명, 의왕시가족센터 황보영

등 종사자 5명이 수상했다.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3개 기관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인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인 남양주시가족센터와 시흥시가족센터가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은 아이돌봄 사업 현장에서 노력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 아이돌보미, 기관에 대한 표창 전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 후에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와 경기도의 성과 보고 및 수상자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연계 및 아이돌보미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도내 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을 담당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과 아이돌보미, 종사자 분들께 직접 상을 전달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수여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순덕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상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겹경사를 맞았다.

송하성 기자

농촌지도 사업 22일까지 접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한 달간 ‘2025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자원 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1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농생명정책 △농업기술 △농축산지원 등 8개 분야에서 총 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농·생명 정책 분야에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농촌 치유 농장 육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농업기술 분야에서 이상고온에 대응해 시설채소 및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과, 농·축산 지원 분야에서는 농업인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사업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 해당 농업인 지소나 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청소년 주민 위한 ‘편그라운드 수동’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3일 수동면 입석리 457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편그라운드 수동’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편그라운드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남양주시민의 특색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이다.

현재 시는 정약용편그라운드(유스호스텔)를 비롯해 진접, 진건, 퇴계원, 다산, 오남 등 6개소를 운영 중이며, 특히 정약용편그라운드는 여성가족부 주최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발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편그라운드 수동’은 지역 내 유휴부지였던 옛 작은도서관을 활용해 조성되며, 청소년 전용공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등 2개 동으로 구성된다.

이지은 기자

남양주시, 휴먼북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탐구생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초등학교생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월 9일부터 2월 24일까지 정약용 도서관 내 휴먼북라이브러리에서 특별 프로그램인 ‘휴먼북 윈터스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통

해 창의력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1월에는 △민미호 휴먼북(음악으로 나를 표현해요) △주진순 휴먼북(재미있는 과학 마술 배우기) △박신선 휴먼북(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 △김도연 휴먼북(매듭아 놀자!) △박서희 휴먼북(남양주 문화유산 이야기)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남양주시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남양주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휴먼북 윈터스쿨’을 통해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 유

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미래교육과 평생학습기획팀(☎031-590-8511, 4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사람이 책이 되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재능공유 플랫폼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통해 △찾아가는 휴먼북 △정기 프로그램 △1:1 상시 열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00여 명 휴먼북과 시민을 연결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비전문 외국인력 20만 7천명 도입한다

법무부, 고용허가(E-9) 13만명...계절근로(E-8) 7만5천명



한국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약 20만 7천명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도입 쿼터(총량)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만 7천명 수준이에요.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인

력(E-9)의 경우 인력수급과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올해보다 3만 5천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어요.

계절근로자(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올해보다 7천명 증가한 7만 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어요.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돼 올해 2만3300명 수준인 선원취업(E-10)은 내년에는 추가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돼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이날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한국 정부는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도입 인력을 산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중국어 16면, 러시아어 우측, 영어 하단>

파파야스토리

법무부, 207,000명 E-9 외국인력 도입 확정

The Korean government held a meeting of the Foreign Workforce Integration Policy Council on December 20th and decided to introduce approximately 207,000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by 2025.

The introduction quota (total amount) sets an upper limit (ceiling) for the number of personnel so that foreign workers can be introduced and utilized at any time according to on-site demand. Next year's introduction quota for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E-8~E-10) is approximately 207,000 people.

Looking at each visa, for non-professional workers (E-9)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number was decided to be 130,000, a decrease of 35,000 from last year, taking into account external conditions such as supply and demand for manpower and economic outlook, as well as the results of a demand survey by employers and related ministries.

scale of introduction was decided to be 75,000,

which is 7,000 more than this year, considering the results of a demand survey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decrease in the rural and fishing population. However, the number of additional entrants to the seafarer employment (E-10), which is operated under a total quota system and is about 23,300 this year, is expected to be about 2,100 next yea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other relevant ministries will finalize the scale of introduction by visa type in 2025 and establish an operational plan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discussed that day through consultations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been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calculating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to be introduced, a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has increased to resolve the labor shortage in industrial sites.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В 2025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мет 207 000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20 дека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ло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инте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гд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инять в 2025 году около 207 000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Фото: Центр 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города Кваньян>.

Квота — это установленный верхний предел числ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привлечен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требностей рынка труд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бщий лимит для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визы E-8~E-10) составит 207 000 человек.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 визам:Для рабочих, привлекаемых по программе трудовых разрешений (E-9), с учётом спроса, прогноз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результатов опросов сред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министерств, квота была сокращена на 35 000 челове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кущим годом и установлена на уровне 130 000 человек.

Для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E-8), с учётом результатов опросов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сокращения населения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квота увеличена на 7 000 человек и составит 75 000 человек.

Для рабочих на судах (E-10), чья квота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авляла около 23 300 человек,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жидается прибыт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2 100 человек.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на основ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квот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вердят план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по визам на 2025 год после согласования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План управл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лагает значительные усилия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точных квот с целью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Возрастающ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м и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привлечением и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требует тщательной координации и планирования.

<한글 기사 좌측 상단>

파파야스토리



남양주시청 031-590-2114 남양주시가족센터 031-590-8214~5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031-563-519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구리남양주지부 1644-7077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031-558-1366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560-1919 범죄신고 112 남양주경찰서 18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기념행사 열어...200여명 참석해 성황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영신부)는 지난 12월 22일 센터 체육관에서 세계이주민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유엔은 지난 1990년 12월 18일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고 10년이 되는 2000년 12월 다시 유엔 총회를 열어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2월 18일을 세계이주민의날을 지정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대신하여 최재웅 남양주시 사회복지국장, 이석균 정결자 경기도의원, 박은경 남양주시의원 등 내외빈과 외국인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영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이주민의날의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주

민 여러분”이라며 “차별 없는 평등 세상, 우리는 지구별 한가족”이라고 외쳤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최재웅 국장은 “인간은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모두 평등한 존재”라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외빈의 축사 후에는 이날의 주인공인 국가별 이주민공동체 대표들의 환영 인사도 있었다.

까오산 방글라데시공동체 대표는 “2004년부터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매일 우리를 도와주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 너무 감사한다”며 “모든 이들이 다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1년 동안 살림희망학교에

서 성실하게 활동한 베트남 이주여성 이지은 씨와 캄보디아 출신 팽판릿 씨가 최우수 학생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오랜 시간 살림희망학교에서 헌신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한 홍순남, 김은정 선생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영 센터장은 두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고 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남양주시장 표창도 전달됐다. 지난 2017년부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베트남 희망공동체를 결성하여 리더로 활동해 온 장유미 씨가 지역 내 이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2부 축하행사는 센터 동아리와 공동체의 축하무대와 초청공연으로 꾸며졌다. 베트남과 중국 춤동아리의 아름다운 무용이 펼쳐졌으며 필리핀 공동체의 흥겨운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특히 춤과 노래로 각자의 실력을 뽐내며 외국인주민의 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마지막 초청공연은 ‘뿌리의 외침’이란 뜻의 무용단체 ‘쿨레칸’이 아프리카 특유의 흥겨운 타악퍼포먼스와 춤으로 관객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만들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다이버’라는 대학생 단체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와 함께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 겪는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환기했다.

12월에 있는 세계이주민의날은 5월에 있는 세계인의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가 세계이주민의날을 기념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송하성 기자





한국어 강사, 어려움 나누고 역량 강화 광주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강사 간담회 개최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오영희)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어교육 강사들을 위한 간담회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강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향유 우인영 대표가 재능기부로 진행한 향수 만들기 워크숍이 큰 관심을 끌었다. 우인영 대표는 강사들에게 조향의 기초와 향수 제작 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며, 자신만의 향수를 제작해 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참여 강사들은 “우인영 대표의 재능기부로 조향의 세계를 이해하고,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이번 간담회와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열정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인영 대표의 따뜻한 재능기부와 더불어 강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기며, 교육 현장에서의 책임감과 열정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오영희 센터장은 “한국어교육 강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들이 성장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2025年将引进20万7千名非专业外国人力

韩国政府12月20日召开了外国人力综合政策议会，决定2025年引进约20万7千名非专业外国人力。引进配额（总量）是根据现场需求，随时可以引进和利用外国人力而设定的人力规模上限（ceiling），明年非专业外国人力（E-8~E-10）的引进配额为20万7千名左右。

从签证来看，根据雇佣许可制引进的非专业人力（E-9）综合考虑了人力供需和经济展望等对外条件和企业主及相关部门的需求调查结果，最终决定为13万人，比今年减少3.5万人。

考虑到地方自治团体需求调查结果及农渔村人口减少，季节劳动者（E-8）的引进规模决定为比今年增加了7千名，总共为7万5千名。

但是以总定员制运营，今年为2万3300名的船员就业（E-10）预计明年入境人数将追加2100名。

法务部、雇佣劳动部、海洋水产部等所管部门将以当天讨论的非专业外国人力总量为基础，通过相关机构的协商等，最终确定2025年各签证的引进规模，并制定运营计划。韩国政府最近为了解决产业现场的人力短缺问题，加大了对外籍劳动力的系统化和综合管理的力度，在确定引入人数方面投入了大量精力。〈한글 기사 13면〉 파파야스토리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내용
가정통신문 번역 :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의 모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 (다국어 가능)
학교 상담 통역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교사 간, 중도입국자녀와 교사 간 상담 통역지원 (베트남어, 중국어가능)

지원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영어, 필리핀어, 일본어, 몽골어
 * 번역 소요 시간 : 베트남어, 중국어 1~2일, 타 언어 3~4일

진행 절차

전화 신청 > 신청서 및 원본 파일 전송 > 번역 후 회신

이메일 주소 및 문의
 이메일 신청 | mcf@ggg.or.kr
 문의 | 070-4706-3733/3744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광주시가족센터에서는 무료로 통·번역 서비스(베트남어, 중국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난민가족 및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서비스 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관련 정보 제공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행정·사법기관 이용시통번역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이용 시 통번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업무 등

지원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이용 시간 : 9:00 ~ 18:00 (월 ~ 금) 점심시간 (12:00~13:00)

서비스 유형 : 통역, 번역, 정보제공

문의처 : 070-4706-3733

광주시가족센터

센터 카카오톡



Với ý tưởng giảm lãng phí thuốc, nhận được giải thưởng và được cấp visa sang Hàn Quốc! 약물 낭비 줄이는 아이디어로 한국에서 상금 받고 비자도 받고!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thường nghĩ đến việc xin visa E-9 khi muốn đến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Tuy nhiên, thay vì làm việc tại các công xưởng Hàn Quốc với visa E-9,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xin cấp 'Visa đặc biệt dành cho công ty khởi nghiệp Hàn Quốc' hoặc visa khởi nghiệp công nghệ (D-8-4) và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với tư cách là một doanh nhân tại 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Bộ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và Khởi nghiệp đã tổ chức Demo Day '2024 K-Startup Grand Challenge' tại COEX, Seoul vào ngày 11 tháng 12 vừa qua.

Demo Day là một cuộc thi, nơi những người tham gia dự thi khởi nghiệp thể hiện thành tích của mình. Với sự tham dự của khoảng 100 người, trong đó có 40 nhóm khởi nghiệp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ác nhà đầu tư mạo hiểm trong và ngoài nước.

'K-Startup Grand Challenge' bắt đầu từ năm 2016, là chương trình hỗ trợ các công ty khởi nghiệp xuất sắc ở nước ngoài thành lập doanh nghiệp trong nước và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Năm nay, có tổng cộng 1.716 đội đến từ 114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đăng ký tham gia.

Sau khi tuyển chọn hồ sơ và đánh giá trình bày, 40 đội cuối cùng đã được chọn và họ đã đến Hàn Quốc vào tháng 9 để nhận khóa đào tạo về thiết lập kế hoạch khởi nghiệp tại Hàn Quốc trong khoảng ba tháng rưỡi và chuẩn bị cho Demo Day này.

Trong Ngày Demo Day, 8 đội đứng đầu được lựa chọn thông qua đánh giá thành tích thương mại hóa và vòng sơ khảo đã trình bày về ý tưởng khởi nghiệp và kế hoạch kinh doanh. Trong đó, có 5 đội đứng đầu cuối cùng đã được chọn và nhận tổng giải thưởng trị giá 400.000 USD.

'Polymerize' (Ấn Độ) được chọn là nhóm khởi nghiệp người nước ngoài xuất sắc nhất năm nay, sẽ nhận được giải thưởng trị giá 150.000 USD. Vị trí thứ hai, nhận 100.000 USD tiền thưởng, thuộc về 'Nanodropper' (Mỹ), vị trí thứ ba thuộc về 'Open Energy' (Bồ Đào Nha), vị trí thứ tư thuộc về 'Gimme Savour' (Tây Ban Nha) và vị trí thứ năm thuộc về 'Murple' (Trung Quốc).

Đội khởi nghiệp đứng đầu là công ty phát triển

phần mềm tin học AI dựa trên điện toán đám mây. Đó là một lĩnh vực không dễ để người bình thường dẫn thân vào.

Bên cạnh đó, đội khởi nghiệp thứ hai đã nghĩ ra cách làm giảm thiểu việc lãng phí thuốc, và đội khởi nghiệp đứng thứ tư với kế hoạch sản xuất các sản phẩm protein từ thực vật có hương vị như thịt, hải sản và phở mai. Đội khởi nghiệp xếp thứ năm cũng đang phát triển một nền tảng chỉnh sửa tài liệu giúp các nhà nghiên cứu có thể viết bài nhanh hơn khoảng 5 lần.

Các bạn thấy như thế nào ạ?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tiếp cận những lĩnh vực khó khăn, các bạn cũng có thể thay đổi thế giới với những ý tưởng của mình phải không ạ?

Tại lễ trao giải này, đã công bố 20 đội đứng đầu, trong đó có 5 đội được trao tiền thưởng. Và dự kiến sẽ hỗ trợ việc thương mại hóa cũng như bổ sung các khóa đào tạo tiếp theo trong 3 tháng để có thể giúp các doanh nghiệp ổn định và phát triển tại Hàn Quốc.

Những bạn người nước ngoài nếu đang có những ý tưởng sáng tạo thì đừng nên bỏ cuộc mà hãy thử thách bản thân nhé!

<한글 기사 9면>

파파야스토리

ด้วยไอเดียลดการสิ้นเปลืองยา ได้รับรางวัลในเกาหลีและวีซ่าอีกด้วย!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안내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มักคิดถึงการขอวีซ่า E-9 หากต้องการมาเกาหลีและทำงา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แทนที่จะทำงานในโรงงานที่เกาหลีด้วยวีซ่า E-9 ลองขอวีซ่า "วีซ่าพิเศษสตาร์ทอัพโคเรีย" หรือลองขอวีซ่าสตาร์ทอัพด้านเทคโนโลยี (D-8-4) และทำงานที่เกาหลีในฐานะ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ถึงแม้จะเป็นเพียงบริษัทขนาดเล็กดูใหม่?

กระทรวง SMEs และ Startups จัดงานเดโมเดย์ 2024 "K-สตาร์ทอัพ แกรนด์ชาเลนจ์" ที่ COEX ในกรุงโซล เมื่อวันที่ 11 ธันวาคมที่ผ่านมา

เดโมเดย์คือการแข่งขันที่ผู้คนพยายามจะเริ่มต้นสตาร์ทอัพแสดงความสำเร็จของตน มีผู้เข้าร่วมประมาณ 100 คน รวมถึงทีมสตาร์ทอัพ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40 ทีม และนักลงทุนร่วมจากในและต่างประเทศ

"K-สตาร์ทอัพ แกรนด์ชาเลนจ์" ซึ่งเริ่มต้นในปี 2016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เพื่อสนับสนุนสตาร์ทอัพ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ยอดเยี่ยมในการก่อตั้งบริษัทในประเทศและตั้งถิ่นฐานในเกาหลี ในปีนี้ มีทีมทั้งหมด 1,716 ทีมจาก 114 ประเทศทั่วโลกที่สมัครเข้าร่วม

หลังจากการคัดกรองเอกสารและการประเมินการนำเสนอ ในที่สุดก็มีการคัดเลือกทีม 40 ทีม และพวกเขาได้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น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 และเตรียมพร้อมสำหรับเดโมเดย์ในครั้งนี้ภายใต้การดูแลของผู้อาวุโสสตาร์ทอัพในประเทศเป็นเวลาประมาณ 3 เดือนครึ่ง

ในวันเดโมเดย์นี้ ทีม 8 อันดับแรกที่ได้รับเลือกผ่านการประเมินความสำเร็จเชิงพาณิชย์และรอบเบื้องต้นโดยผู้อาวุโสสตาร์ทอัพแต่ละคนนำเสนอรายการสตาร์ทอัพและแผนธุรกิจของตน และในที่สุดทีม 5 อันดับแรกก็ได้รับเลือกให้ได้รับเงินรางวัลรวม 400,000 ดอลลาร์ในที่สุด

"Polymerize" (อินเดีย) ได้รับเลือกให้เป็นทีมสตาร์ทอัพ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ดีที่สุดประจำปีนี้ ซึ่งจะได้รับรางวัลมูลค่า 150,000 ดอลลาร์ อันดับที่ 2 ซึ่งได้รับเงินรางวัล \$100,000 เป็นของ "Nanodropper" (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 อันดับที่ 3 "Open Energy" (โปรตุเกส), อันดับที่ 4 "Gimme Savor" (สเปน) และอันดับที่ 5 "Murple" (จีน) ตามลำดับ

สตาร์ทอัพระดับท็อปคือบริษัทที่พัฒนาซอฟต์แวร์

สารสนเทศด้านวัสดุ AI บนคลาวด์ เป็นสาขาที่ไม่ใช่เรื่องง่ายสำหรับคนทั่วไปที่จะทำหาย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สตาร์ทอัพอันดับ 2 ได้ออกแบบวิธีการลดการสิ้นเปลืองยา และสตาร์ทอัพอันดับ 4 ยังเป็นสตาร์ทอัพที่ผลิตผลิตภัณฑ์โปรตีนจากพืชที่มีรสชาติเหมือนเนื้อสัตว์, อาหารทะเล, และชีส สตาร์ทอัพอันดับที่ 5 กำลังพัฒนาแพลตฟอร์มการแก้ไขเอกสารที่ช่วยให้นักวิจัยเขียนรายงานได้เร็วขึ้นประมาณ 5 เท่า

เป็นยังไงบ้าง? แม้ว่าท่าน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นำเสนอในสาขาที่ยากแต่กำลังพยายามเปลี่ยนแปลงโลกด้วยความคิดของท่านเองใช่ไหม?

ในพิธีมอบรางวัลในวันนี้ มีการประกาศทีม 20 อันดับแรก รวมถึง 5 ทีมที่ได้รับเงินรางวัล และวางแผนที่จะ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ติดตามผลแก่พวกเขา เช่น เงินทุนเชิงพาณิชย์เป็นเวลา 3 เดือน และการดูแลเด็กเพิ่มเติมเพื่อช่วยให้พวกเขาตั้งถิ่นฐานและเติบโต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ได้

หากท่านมีความไอเดียที่ทำหายและสร้างสรรค์ อย่ายอมแพ้และลองดูสิครับ! <한글 기사 9면>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족에게 도움 될 지역소식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제공

광주시가족센터는 2025년에도 어린 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 모국어로 번역 해주는 서비스인 <가정통신문 번역>과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교사 간, 중도입국 자녀와 교사 간 상담 통역 지원서비스인 <학교 상담 통역>이다. 가정통신문 번역은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영어, 필리핀어, 일본어, 몽골어 등 다국어로 가능하며, 학교 상담 통역은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가능하다.

신청은 전화(070-4706-3733/3744) 후 신청서 및 원본 파일을 전송하면 번역 후 회신해 준다. 이메일 신청(mcf@ggg.or.kr)도 가능하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광주시가족센터는 2025년에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난민가족 및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지원하며,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제공 서비스는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 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교육 과정 통번역 지원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행정·사법기관 이용 시 통번역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가족센터(070-4706-3733)로 하면 된다.

#따뜻한 겨울, 딸기 먹으러 가요

광주시는 울겨울 수확 체험이 가능한 딸기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수수락딸기는 2017년 브랜드를 만들어 균일한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광주시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자연채 사용 인증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딸기 수확 체험 및 농장 직관, 자연채 푸드 팜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등 다양한 판매를 하고 있다.

딸기 수확 체험을 운영하는 농장은 하늘애플기농장, 고운농장, 울트라팜(이상 곤지암읍), 맛다나농장, 울봄농업예술원, 성인농장, 딸농장(이상 퇴촌면), 숲속애플기농장, 향아딸기농원, 주몽농장(이상 남종면), 아딸농장, 해일농원(이상 동지역), 청포농원(이상 남한산성면)까지 13곳이며 체험 기간은 2025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딸기 수확 체험은 500g을 기준으로 대인 2만5천원, 소인 2만2천원이고 체험을 시작하기 전 직접 생산하는 농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체험 농장별로 각기 다른 체험학습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종인 금실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설향과 금실의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농가도 있다”며 “앞으로도 심상하고 품질 좋은 딸기를 직접 수확해 보는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 농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소비자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 10% ↑

광주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한 달간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는 설 명절 시민 소비 증가를 반영하고 소비 촉진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민 1인당 총전액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한도액까지 총전 시 최대 인센티브로 5만원 혜택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월 한 달간 인센티브 예산으로 20억원을 배정했다. 전년 14억 대비 6억원이 늘었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들이 광주사랑카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해 지역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의 기자

Укрепле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обучения для адаптации работников с визой Е-9 к условиям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твердило бюджет на 2025 год и объявило, какие суммы будут выделены на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оек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работающие на средства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обязаны предоставлять гражданам информацию о своих программах и расходах. Согласн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данным, можно узнать, сколько средств будет выделено на поддержку труда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Давайте рассмотрим это подробнее.

Подготовк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Иностранцы с визой Е-9, работающие в Корее,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различ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в промышленной сфере. Им сложн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незнакомым условиям работы, освои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инструментов, с которыми они раньше не сталкивались, а также работать и жить, использу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этому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решило расширит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①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обучение для работников с визой Е-9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оводится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региональными центрами развития кадров пр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е Кореи или мест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В рамках этой программы работники обучают базовым навыка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работы, включа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азличных машин и инструментов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фере.

Кроме того, обучение помогает улучшить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навык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ля работы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такое обучение могут работодатели, а не сами иностранные р

ботники. Обычно курс длится 4 недели,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чить 6000 человек. Также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количеств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центров для обучения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②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Кореи уже проводя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курсы. В рамках пилотного проект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 уклоном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лексику. В нем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50 человек.

③ Поддержка системы ду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совмещающим учебу и работу, слож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правиться с поиском компаний, прохождение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и процессом смены визы. В связи с этим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планируе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ограммы для 1000 студентов, позволяющие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совмещать работу и учебу.

④ Обучение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ая поддержка

У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уровень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травматизма выше, чем у мест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Чтобы сделать их труд безопасны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намерено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ть и расширить обучение по охране труда. Будет разработано больш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 различных языках.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усил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трудностям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한글 기사 7면>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족도 양평군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 혜택 누리요~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 다자녀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양평서 KTX 타고 기차여행 등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연경)는 지난해 11월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란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은 미취학 영유아 가정 100가구 대상으로 교재.교구 배달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사용법 영상 및 양육자 대상으로 놀이 코칭 영상을 제공했다. 또한, 교재.교구를 활용해 심화 코칭도 신청하는 가정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다.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 사업은 2025년에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연경 센터장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재.교구를 탐색하고 구입하는 일은 부모님들에게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준다"며 "부모의 걱정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놀이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양서면에 건립한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놀이지도사 사업으로 매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ypsc.or.kr) 또는 전화(031-773-2331)로 문의하면 된다.

#다자녀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양평읍(읍장 김문희)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공포에 따른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범위 확대 및 무상 제공 간소화에 따라 2025년에는 한번 신청으로 12개월 종량제봉투 지급(201 종량제봉투 72

장)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 맞춤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말(토, 일) 10시부터 17시까지 주말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양평읍 내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는 신청서(양평읍사무소 비치) 작성 후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24시간 무인 발급기 운영)을 첨부하여 근무자에게 제출하면 즉시 검토 후 지급할 예정이다.

양평읍 2025년도 다자녀 종량제봉투 무상 신청은 2025년 1월 6일부터 양평읍 청결팀(031-770-3021)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근무시간 내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방문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별도 산 확인 없이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양평서 KTX 타고 기차여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중앙선 안동-

북영천 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개통함에 따라 청량리-부천 간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선 철도는 경부선에 이어 두 번째로 개통된 노선으로 2001년 청량리-덕소 복선전철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도담-북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청량리와 경주, 울산을 거쳐 부산(부전역)으로 운행이 가능해졌다.

부전역을 종점으로 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는 일일 편도 3회, 왕복 6회 운행되며, 향후 이용현황에 따라 운행 횟수나 중간정차역 등 열차 운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으로 신호시스템 개량, 추가 차량 도입을 통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Don't forget your ID when you go to the hospitals and clinics!

Starting May 20, 2024, the medical institutions will verify your identity when you receiv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去医院的时候 一定要带身份证!

从2024.5.20.开始 用健康保险诊疗时 确认是否为本人。

2024年5月20日以后 健康保险受診する際は 本人確認を行います

2024-yil 20-maydan boshlab Sog'liqliq saqlash sug'urtasi bilan davolanayotganda Shaxsni tasdiqlash amalg'a oshiriladi.

2024年5月20日以后 健康保险受診する際は 本人確認を行います

2024-yil 20-maydan boshlab Sog'liqliq saqlash sug'urtasi bilan davolanayotganda Shaxsni tasdiqlash amalg'a oshiriladi.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生活垃圾回收要领

수거전일 일몰 이후 ~ 수거당일 일출 이전 배출 回收前一天日落後 ~ 回收当天日出前投放

종량제 봉투(소각용) 소각 가능한 쓰레기 배출요령 · 일반용 종량제 봉투 사용 품목 · 기저귀, 화장지, 물수건, 노끈, 돗자리, 코팅종이류, 아이스크림, 종이컵, 종이조각 등 · 각종 차 및 한약재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식품의 조리과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배출요령 · 수분 및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후 음식물종량제 봉투에 배출 배출요령 · 음식물류, 생선뼈 등 · 감정쓰레기는 일반종량제 봉투 배출	计量垃圾袋(焚烧用) 可焚烧的垃圾 投放要领 · 使用普通计量垃圾袋 배출요령 · 수분 및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후 음식물종량제 봉투에 배출 배출요령 · 음식물류, 생선뼈 등 · 감정쓰레기는 일반종량제 봉투 배출	食物垃圾 烹饪前后过程中产生的垃圾及食用后剩余食物垃圾 投放要领 · 充分去除水分及异物, 放入食物计量垃圾袋后丢弃 배출요령 · 음식물류, 생선뼈 등 · 감정쓰레기는 일반종량제 봉투 배출
매립용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배출요령 · 면사투입에서 불연성종량제봉투 투입 후 배출 배출요령 · 깨진 유리, 시크릿, 도자기류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읍, 면에 신고 후 수수로 납부하고 스티커 부착 후 배출	埋埋用 无法焚烧或回收利用的垃圾 投放要领 · 在邑、面事务所购买非燃性计量垃圾袋后丢弃 배출요령 · 破碎玻璃、瓷碗、陶瓷器皿类	大型废弃物 生活废弃物中无法放入计量垃圾袋中的大型废弃物 投放要领 · 向邑、面申报后交付手续费, 再贴上贴纸后丢弃
재활용품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배출요령 · 투명 비닐봉투에 배출 품목 · 지폐나 내용은 뒷면 참조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읍, 면에 신고 후 수수로 납부하고 스티커 부착 후 배출	回收用品 可回收的垃圾 投放要领 · 放入透明塑料袋中丢弃 品名 · 大型家电产品(无偿回收) ※ 1599-0903 (韩国电子产品资源循环共济会)	品名 · 家具类、水族馆、地板革、地毯、洗手台等 · 大型家电产品(无偿回收) ※ 1599-0903 (韩国电子产品资源循环共济会)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 혼합배출 금지 혼합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 행정처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禁止混合丢弃普通废弃物和回收物品 混合丢弃、未使用计量垃圾袋时, 应接受行政处分(100万韩元以下罚款)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回收物品应该这样分类。

※ 용기류 내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容器类需清理内部异物后丢弃

※ 같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按同类品分类, 放入透明塑料袋后丢弃

종이류 · 신문, 책, 노트, 종이박스 등 · 비닐랩, 테이프, 스티폼 등 제거하고 묶어서 배출 · 무명용 - 세척 후 열처리 배출(면사투입에서 후처리 가능) ※ 반드시 묶어서 배출	종이류 ·报纸、书、笔记本、纸箱等 · 发泡材料泡沫、胶带、海绵等, 孔孔一起丢弃 · 牛皮纸、薄质纸、再生纸(可在邑、面事务所, 与废纸交换) ※ 必须一定要捆扎一起
캔/철류 · 캔, 알루미늄, 철, 스티폼 등 · 부탄가스 용기, 실용재 용기는 구멍을 열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易拉罐/铁类 · 易拉罐、铝、铁类、不锈钢等 · 丁烷瓦斯容器、杀虫剂容器等, 去除内容物后丢弃
플라스틱 · PET, PE, PS 재질 등의 용기 ·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온돌지 등 용기, 부탄가스 용기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플라스틱 · PET, PE, PS 材质等容器 · 需清理内容物, 去除其他材质的盖子(或铝罐盖、塑料膜等), 商标等, 并尽可能压扁后丢弃
유리병류 · 담배갑, 병뚜껑 등 제거 후 배출 · 깨진 유리, 시크릿, 도자기류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 읍, 면사투입에서 불연성종량제봉투 투입 후 배출 · 빈병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액환급처에서 환급	玻璃瓶类 · 去除烟头、瓶盖后丢弃 · 破碎的玻璃、瓷碗、陶瓷器皿不可回收。 在邑、面事务所购买非燃性计量垃圾袋后丢弃。 ※ 空瓶保证金对象玻璃瓶, 可在小卖店退款
비닐/필름류 · 라면, 고기, 떡, 빵 등 용품 포장재, 1회용 비닐, 비닐포장지 등 음식물류 및 농수산물 포장용 비닐은 부직면 스티커, 테이프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는 세척하여 건조 후 배출 ※ 공상장 선지(종이팩)는 반드시 "제1종"으로 분리배출	플라스틱/暗地塑料类 · 方便面、饼干、馒头、面包袋等暗地包装材料。 ※ 发泡材料泡沫、胶带、海绵等不可回收。 ※ 沾食物等异物时不可回收, 需放入计量垃圾袋后丢弃
스티로폼 · 기저귀, 화장지, 물수건 등 용품 포장재, 1회용 비닐, 비닐포장지 등 음식물류 및 농수산물 포장용 비닐은 부직면 스티커, 테이프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는 세척하여 건조 후 배출 ※ 공상장 선지(종이팩)는 반드시 "제1종"으로 분리배출	泡沫 · 家电产品包装材料需弃到销售处 · 生活用品及水产包装材料泡沫, 需弃到黏贴、胶带等废弃物, 再扎在一起丢弃。 ※ 发泡材料泡沫、胶带、海绵等不可回收, 需放入计量垃圾袋后丢弃
폐형광등/폐전지 ·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주의해서 읍, 면사투입에 버려진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전지는 읍, 면사투입에 버려진 전용수거함에 배출	废日光灯/废电池 · 废日光灯不要弄碎, 投放至邑、面事务所内的专用回收箱中 · 废电池投放至邑、面事务所内的专用回收箱中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문의 有关生活废弃物回收相关的问题

양평읍: 031-770-3021 | 양서면: 031-770-3052 | 경하면: 031-770-3089 | 양서면: 031-770-3105
 옥천면: 031-770-3132 | 서종면: 031-770-3165 | 달천면: 031-770-3197 | 청운면: 031-770-3222
 양평면: 031-770-3253 | 지평면: 031-770-3283 | 용문면: 031-770-3335 | 개운면: 031-770-3344

楊平邑: 031-770-3021 | 江上郡: 031-770-3052 | 江下郡: 031-770-3089 | 楊西面: 031-770-3105
 玉泉面: 031-770-3132 | 西宗面: 031-770-3165 | 丹川面: 031-770-3197 | 靑雲面: 031-770-3222
 楊平面: 031-770-3253 | 芝平面: 031-770-3283 | 龍門面: 031-770-3335 | 介軍面: 031-770-3344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남시가족센터 3층 요리 교실에서 결혼이민자 26명과 함께 가화만사성 '세계요리 뽐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4개국을 대표하는 요리를 팀별로 만들고, 완성된 각국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에게는 고국의 음식과 관련된 추억을 공유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되

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모 씨는 “하남시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가화만사성 세계요리 뽐내기 대회를 통해 서로 간 협력하는 방법과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완성도 있는 음식을 만들고, 성취감까지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다문화 공존과 상호 이해 교류를 위해 더 노력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청소년 진로에 실질적 도움과 지지!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 청소년 '디디캠퍼스' 평가회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해 12월 20일 다문화 학령기 청소년을 위한 '디디(Design your Dream)캠퍼스, 함께 내일을 만드는 진로세계여행' 프로그램 운영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는 지난해 10월 7일 프로그램 실무자와 운영자가 함께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회'에서 도출된 '참여 청소년의 의견수렴'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운영평가회 시작에 앞서 8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8회기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10명의 청소년에게 수료증과 상품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프로그램의 장점 ▲아쉬운 점 ▲발전 방안과 개선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부중학교 2학년 학생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진로 성장을 위한 행동의 중요

성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입학 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남시가족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면 집단상담과 1:1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문병용 센터장은 “하남시가족센터는 2025년도에도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고자 개인 상담 및 진로 심리검사, 진로 체험과 교육, 전환기 진로집단상담 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사업 중장년수다살롱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SNPE 하남미사점에서 하남시 거주 1인가구 중장년 4명과 함께 중장년수다살롱-바른자세운동 동아리를 진행했다.

중장년수다살롱-바른자세운동 동아리는 중장년 1인가구 동아리 구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구성됐으며, 7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월 2회기 총 12회 운영됐다.

문병용 센터장은 “하남시 내 많은 중장년 1인가구들이 하남시가족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나누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 황톳길 개장 감일지구와 위례지구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감일문화공원, 위례순라공원에 황톳길을 지난 30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일지구와 위례지구는 맨발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 시민들로부터 황톳길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감일문화공원과 위례순라공원에 황톳길을 추가 조성했다. 또한, 겨울을 맞이해 감일문화공원 황톳길 220m 길이중 80m 구간에 사계절 시설을 조성했고, 위례순라공원 황톳길은 160m길이 전체구간에 사계절 시설을 설치했다.

사계절 시설은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어 눈과 비를 막아주고 전기히터로 내부온도를 높여주며, 세족장에는 온수기를 설치해 얼어있는 발을 따듯하게 녹여주기 때문에 야외활동이 제한적인 겨울철에도 시민들은 맨발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지난 풍산근린3호공원과 미사숲공원 황톳길에 이어 사계절 시설을 설치한 황톳길을 추가 확보하여 하남시는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황톳길이 4개소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기존 6개소 황톳길에 이어 감일, 위례에도 황톳길이 조성되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Reason why illegal aliens who left the country during the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eriod returned after one year 미등록 외국인 자진출국기간 연장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extend the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eriod for Illegal Overseas Residents', which was scheduled to run until November 30, by two months until January 31, 2025. This extension measure is intended to provide more illegal overseas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and to take into account situations such as the year-end and New Year holidays when it is difficult to book return flights.

Illegal aliens wh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during the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eriod can receive benefits such as ▲exemption from fines for illegal stay ▲exemption from entry restrictions. However, foreigners who have stayed illegally after September 30 of this year,

illegal immigrants, those who have used forged passports, criminals, and those who have failed to comply with departure orders are excluded.

Exemption from entry restrictions, is it real?

Many foreigners wonder whether foreigners who leave Korea during the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eriod are actually granted the benefit of exemption from entry restrictions. It is true that they are granted the benefit of exemption from entry restrictions. However, this only means that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entry restriction list.

If an illegal alien who voluntarily left Korea applies for a visa at the Korean embassy to return to Korea from his or her home country, the consul in charge of the visa can confirm that

the name of the alien is not on the entry restriction list, but the record of illegal residence in Korea remains. Therefore, the consul in charge of the visa will refuse to issue the visa.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banned from entering the country?

Even if an illegal alien voluntarily leaves the country, he or she is generally prohibited from entering Korea for five years. Many foreigners ask if there is any other way, but if there is a humanitarian reason, he or she can enter earlier.

For example, if a husband who followed his wife to graduate school in Korea became an illegal resident and then voluntarily left the country, it would be difficult for him to re-enter the country within 5 years. However, the wife became pregnant before the

husband voluntarily left the country, and while the husband was in his home country, she gave birth and had to take care of her studies and childcare alone. Anyone can see that this is a humanitarian case.

Of course, in this case, the husband's visa was initially denied. But the wife did not give up and filed a complaint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cided that it was appropriate to issue a visa, and there was actually a case where a person entered Korea within a year of leaving the country. Without such a clear and valid humanitarian reason, it is difficult to re-enter Korea within five years. <한글 기사 31면>

파파야스토리

Почему иностранцы, покинувшие Корею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вернулись спустя год? 미등록 외국인 재입국 사유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объявило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программы «Добровольный выезд для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с 30 ноября 2024 года до 31 января 2025 года.

Это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доставить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нелегально проживающим иностранцам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а также учесть сложности с бронированием авиабилетов в период праздничных каникул.

Иностранцы,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дающие Южную Корею в этот период,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следующие преимущества:▲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штрафов за нелегальное пребывание;▲Отмену запрет

а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Однако эти льготы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начали незаконно проживать в Корее после 30 сентября 2024 года, а также на лиц, въехавших в страну нелегально, с поддель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нарушителей приказа о депортации и лиц, совершивших уголов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отменяется?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сомневаютс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программа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снимает запрет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Это правда, что в этом случае человек не включается в официальный список запрещённых к въезду. Однако факт незаконного пребыван

ия остаётся в базе данных.

Например, если человек подаёт заявление на визу в посо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консульский офицер, проверяя прошлое заявителя, видит записи о незаконном пребывании. На этом основании выдача визы,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отклонена.

Когда можно будет вернуть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Даже при добровольном выезде большинству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запрещается въезд в Южную Корею на 5 лет. Однако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связанных с гуманитарными причинами, срок запрета может быть сокращён.

Например, муж, который стал нелегальным мигрантом, доброво

льно покинул страну, пока его жена не училась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 время его отсутствия жена родила ребёнка и столкнулась с трудностями, совмещая учёбу и воспитание ребёнка.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жена обратилась в Комиссию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правам и добилась того, чтобы её мужу выдали визу на основании гуманитарных причин. Это позволило ему вернуть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спустя всего год после выезда. Однако такие случаи являются исключением и требуют веских и очевидных гуманитарных оснований. Без них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в страну в течение 5 лет остаётся крайне затруднительным.

<한글 기사 31면>

파파야스토리

가족상담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평택시가족센터, 내담자에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가족상담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6차 상담사례회의 및 간담회를 지난해 12월 13일 진행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상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 2회 슈퍼비전과 연 6회 상담사례회의를 진행해 개인 및 가족상담 진행 사례를 전문가로부터 점검받음으로써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6차 상담사례회의는 다문화아동 놀이치료 사례로 아동의 언어표현력 부족과 자신감 향상에 대해 논의했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의 양육 참여를 촉구하는 방법에 대해 동료 슈퍼비전을 했다. 또한, 다문화 상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나누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며 상담사 간 도움을 주고받았

으며, 간담회에서는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김성영 센터장은 “2024년 새롭게 시작한 온가족보듬 사업에 포함된 가족상담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외래상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에도 가족상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 전문상담, 교육, 생활서비스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부모-자녀 상담, 심리검사 및 놀이치료, 미술치료, 부모교육 등을 통해 가족 내에서 발생 되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 연말연시 겨울철 경고 감염병 발간불...개인위생 철저!

평택시는 겨울철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의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5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유행기준(8.6명)을 초과해 지난 20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표했다. 호흡기 감염병(인플루엔자,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은 소아 및 학령기, 청소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으며, 면역력이 낮은 경우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급성 설사와 구토, 복통을 유발하는 장관 감염증(노로바이러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등)도 전주 대비 409명 증가했다.

장관 감염증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할 때 발생하며, 감염 초기 증상이 없고, 사람 간 접촉으로 쉽게 전파돼 집단발생 위험이 있다.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음식 섭취를 삼가고, 조리도구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한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상담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해결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평택시민 누구나
- 장 소 : 상담분소 및 외부시설
- 문 의 : 031-647-3097

사례관리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해소 지원

- 사업대상 : (취약가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긴급·위기가족)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장 소 : 평택시 관내
- 문 의 : 본소(북부) 031-615-3964 / 분소(서부) 031-660-7474

보듬매니저 파견

- 사례관리 대상가정 중 학습정서·생활도움·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 통역서비스
- 번역서비스
- 정보 제공

가족대화, 공공기관 (은행, 병원 등), 센터 이용 시 통역지원

가족편지·문자, 국적취득·체류연장 관련 서류 등 번역지원

임신·출산·양육, 국적취득·체류연장, 교육 정보 등 제공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이용 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등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작성 ▶ 서비스 지원

소요 시간 : 베트남어 1~3일 소요/타 언어 3~5일 소요(번역 서류)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 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반복적인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약속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공중을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韓国の名門大学で学士号を取得し、外国人労働者、多文化家族の夢を叶える！

慶熙サイバー大学、外国人のためのオンライン学士号課程を運営... 学費も格安

韓国に居住する外国人労働者の夢は何でしょうか？安定したビザを持って家族と一緒に滞在しながらお金をたくさん稼ぐことです。

単純で明白な移民たちの願いに、韓国政府も最近新しいビザ政策を発表して応えました。しかし、E-7-4ビザ取得のためのK-point政策とF-2-Rビザ取得のための地域特化ビザ政策にもかかわらず、外国人労働者はなかなか挑戦できていません。

韓国社会にうまく適応できず、工場や食堂で働くしかない多文化家族はどうでしょうか。より良い仕事を望む多文化家族が韓国社会に適応し、就職するためにできることは何でしょうか。

それは、韓国語能力の向上と大学卒業という学歴です。

しかし、移民が会社の仕事と韓国語の勉強を両立させるの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さらに、韓国で大学を卒業するのは、多くの費用と時間がかかるため、とても難しいです。しかし、この2つの困難を簡単に克服できる学士号プログラムが誕生しました！

韓国で大学卒業、可能？

慶熙サイバー大学(学長ビョン・チャング)は韓国教育部の支援を受けてグローバル自律学部を新設し、外国人住民のために安定的で質の高い教育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ます。この大学はすべての授業と試験をオンラインで行うので、仕事をしながら大学を卒業することが可能です。

学費はどうでしょうか？韓国の他の大学の年間学費が700万~900万ウォンであるのに対し、慶熙サイバー大学グローバル自律学部はすべての学生に50%の奨学金を付与して年間学費が151万2千ウォンしかかかりません。

まず、無専攻でこの大学に入学すると、1年次課程は大学生活への適応と基礎力強化を重点的に学びます。

主な科目は大学韓国語1と2、韓国社会と大学理解、専攻探求と学習戦略、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などです。学生は本当に自分の専攻を選択する前に、進路設計と様々な専攻の探求を通じて自分に合った進路を設定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後、2~4年次にはIT、電子情報、経営、観光、韓国語など様々な専

攻を選択して深化学習を進めることができます。

韓国語ができないが、どうすれば？

慶熙サイバー大学は韓国語ができなくても入学することができます！韓国語の実力に関係なく、合格通知が届けば、入学前にこの大学の韓国語センターで飛び石コース、つまり、韓国語研修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単位も6単位が認められます。入学後は、大学の韓国語の授業と韓国語研修コースを交互に受講して実力を伸ばすことができます。卒業する際にも、韓国語能力試験(TOPIK)の要件は要求されません。しかし、韓国語の授業について行くためには、実質的にTOPIK3級以上の実力が必要です。もし学生がTOPIK4級を取得すれば、奨学金受給も可能です。

大学を卒業するとどんなメリットが？

では、慶熙サイバー大学を卒業すると、韓国でどんなメリットがあるのでしょうか？慶熙サイバー大学は韓国の名門校である慶熙大学が母体であり、当然4年制の学位が認められます。

特に学士号が認められれば、E-7-4ビザを取得するのに20点を得ることができ、韓国語の実力も大学卒業過程でTOPIK4級は問題なく取得できるので、120点を追加で得ることができます。E-7-4ビザの取得は難しくありませんね。

最近、外国人労働者に関心が高い地域特化ビザの場合でも、韓国の大学卒業証書を持つ外国人は加点されるのでとても有利です。

韓国で大学を卒業したベトナム出身のイ・ジウンさんは、「韓国の大学で勉強する前は、自分自身が韓国社会に属することができずと感じていた」とし、「しかし、大学卒業後は多くの韓国人に認められ、韓国社会の一員になったという自信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特に、韓国社会を理解し、社会構成員として参加するのに大きな助けになった」と述べました。

奨学金給付と医療費減免

慶熙サイバー大学はもともと学費が安いですが、グローバル自律学部の学生は入学時奨学金、生活奨学金、成績

奨学金など様々な奨学金制度を通じて学費の負担を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最近、慶熙サイバー大学では新入生と編入生の97.3%が奨学金の恩恵を受け、特にグローバル自律学部の入学生は入学から卒業まで50%の奨学金の恩恵を受けられます。また、慶熙サイバー大学は学生に慶熙大学病院及び江東慶熙大学病院の10%の医療費減免の恩恵を提供し、特に移民に医療翻訳サービスを無料でサポートしています。

慶熙サイバー大学のグローバル自律学部は、韓国生活に必要な様々な知識と融合教育を提供し、会社の社長や同僚から認められるグローバル人材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入学はどうすれば？

慶熙サイバー大学グローバル自律学部は、2025年度1学期1次新入生募集を2025年1月14日まで行います。2次募集

は2月14日までです。原書受付は慶熙サイバー大学入学支援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go.khcu.ac.kr.kr.kr.jp)にPCまたはモバイルでアクセスし、入学願書作成、選考資料作成などの手続きを経て出願すればOKです。

慶熙サイバー大学グローバル自律学部のソ・ジンスク教授は、「私たちは外国人学生が学問と実務能力を高め、グローバル社会で堂々と活動できる機会を提供したい」とし、「慶熙サイバー大学で勉強すれば、移民が韓国で安定的で成功的な生活の基盤を築くのに大きな助けになるだろう」と述べました。

入学に関する詳細は、入学支援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go.khcu.ac.kr)または入学相談電話(02-959-0000)でご確認ください。

<한글 기사 5면>

과과야스토리

자주 묻는 질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정규 4년제 대학인가요? 일반 4년제 대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4년제 대학교입니다.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이 가능합니다.

수업과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업, 시험, 과제 제출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해외와 지방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 및 과제 제출은 PC만 가능하며, 강의 수강은 PC,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입학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터넷 원서 접수 ▶ 자기소개서와 인성검사 ▶ 입학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등록
* 입학전형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수능 점수나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할 경우, 공통서류 이외에 외국인(여권 사본 등) 및 다문화 가정(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를 참고하세요.

전원료 및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자율학부 입학생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50% 장학혜택이 부여됩니다.
* 외국인 및 해외거주자의 경우 전원료 면제
* 실입학비용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재외국민, 외국인인 만제)

전원료	상당비용	등록금
30,000원	99,000원	학점당 84,000원 (12학점 1,008,000원 ~ 18학점 1,512,000원) 장학 반영 시, 학점당 42,000원 (12학점 504,000원 ~ 18학점 756,000원)

한국어를 잘 못해요. 어떡하죠?

입학 전·후 기초 수준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이 인정되는 디딤과정(한국어연수)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디딤과정 상시 개설 : 아카데미입문한국어1, 아카데미입문한국어2, 아카데미준비한국어

한국어센터 홈페이지

TOPIK 2급 이하 및 미소지자를 위한 로드맵				
입학 전	입학 전		입학 후	
	수강시기	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입학자 등록	과정	다딤과정 이수	대학한국어	대학한국어2
	운영주체	한국어센터	글로벌자율학부	글로벌자율학부
			한국어센터	한국어센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2024년 송년행사 '다(多) 같이, 더 가치!'를 지난해 12월 7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송년행사는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며 평택시가족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평택시 관내 다양한 가족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센터 이용자와 후원자, 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평택시가족센터 특화사업인 '해금아카데미' 수강생들의 해금 연주와 베트남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전통무용팀 '흐영 쉐 벳'의 공연으로 행사 시작을 알리며 1부에는 우수 종사자와 후원자, 봉사자 시상식과 정년퇴직 직원 감사패

를 전달했으며 2024년 센터 사업보고 영상 상영을 통해 그간의 다양한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전자 바이올린 및 LED트론댄스 공연,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참석해 우수 종사자 표창장을 수여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아쿠아필드 안성점(점장 김진현)에서 워터파크 및 찜질.스과 무료 이용권을 지원해 더

욱 풍성한 행사가 마련됐다. 김성영 센터장은 "올 한 해 센터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평택시가족센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평택시 관내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帮助E-9劳动者适应产业现场的“特化训练”将得到加强... 雇佣劳动部确定2025年度预算

韩国的雇佣劳动部已确定2025年预算，并公布了各项目的资金使用情况。用国民税金运营的政府机关有义务向国民提供有关项目和预算的信息。从此次发表的内容中可以看出，为了外国劳动者在哪些领域使用了多少预算。以下是相关内容的整理。

熟练人才培养

持E-9签证在韩国工作的外国人在韩国产业现场面临各种困难。

现场本身就很陌生，而且各种机械设备和工具也是第一次接触，不了解如何

使用。再加上工作和生活要用韩语，所以很难适应。因此雇佣劳动部决定明年扩大针对外国劳动者的特化教育课程。

①E-9特化训练：该项目是与大韩商工会会议所的地区人力开发院或地区产业体合作，对E-9劳动者进行基本职务技术教育。培训内容包括制造业的多种机器及工具使用方法和职务基础训练，特别是该培训还帮助劳动者在制造业现场掌握一定的韩语沟通能力。特殊培训是由雇主而非外国劳动者申请的，通常课程为期4周。计划明年培训6000名劳动

者。明年还计划增加运营非专业外国人特化训练中心。

②Polytech韩国语训练：韩国的Polytech大学本来就运营职业培训课程。现决定让外国人参与进行技术韩国语培训。该试点项目可供50名外国人参与。

③外国留学生工作学习并行支援：外国留学生一边上学一边独自完成企业探索、职务训练、签证转换等工作很困难。对此雇佣劳动部计划明年以1000名

留学生为对象提供支援，帮助他们系统地工作进行和学习的训练项目。

④安全保健教育及咨询支援：外国劳动者发生工业事故的比例上高于本地劳动者，为了让劳动者能够安全工作，雇佣劳动部计划明年系统化并扩大安全保健教育。此外，将开发更多多语言教育内容。同时，还将加强针对在工业现场遇到困难的外国劳动者的咨询和支援服务。

(한글 기사 7면)

파파야스토리



평택시청 031-8024-5000 평택시가족센터 031-615-3959 평택시외국인복지센터 031-652-885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031-8024-9600
 평택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031-618-1366 평택국제교류재단 031-692-4301-3 송탄보건소(외국인 진료) 031-8024-661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에보안내 131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① Top-Tier 비자 신설

기존 AS-IS	개선 TO-BE
첨단분야 우수인재 유치 위한 인센티브 부족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 으로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 (2025년 1분기)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비자 신설로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 출입국 체류 편의를 제공하여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주를 유도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① Top-Tier 비자 신설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⑤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기존 AS-IS	개선 TO-BE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한정, 지역 여건을 반영한 비자제도 부족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로 확대 하고,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 (2025년 4분기)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광역지자체가 맞춤형 비자제도를 제안하는 **"광역형 비자"**를 통해 지역 수요와 국가 전체 정책 방향과의 조화를 동시에 고려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해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⑤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Start-up Korea Special Visa

주요 개선사항 1년 2024. 11. 7. 목 ~ 20. 수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②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기존 AS-IS	개선 TO-BE
짧은 진로 탐색기간 및 취업 후 취업 범위 협소	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 (1년 → 3년) 및 취업 허용 범위 확대 를 통해 인적자원 활용 ↑ (2024년 4분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합니다!

주요 개선사항 ②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⑥ 이민 2세대 체류·자립 지원

기존 AS-IS	개선 TO-BE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취업 불가	고교 졸업 후 비로 취업 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학업·취업 지원 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의 성장 촉진 (2024년 4분기)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⑥ 이민 2세대 체류·자립 지원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 창업인재를 위한 특별한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

주요 개선사항 2p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 Start-up Korea Special Visa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③ "청년 드림" 비자 신설

기존 AS-IS	개선 TO-BE
잠재력이 높은 해외 청년인재 발굴을 위한 비자제도 미흡	한국전 참전국, 경제협력국(반도체·차 등) 청년 에 취업·연수·문화체험 기회 부여 (2025년 2분기)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 신설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 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③ 청년 드림 비자 신설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⑦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기존 AS-IS	개선 TO-BE
동포 비자(F-4) 신청 요건이 국적별로 달라 차별 논란 야기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된 비자 체계를 단기적으로 통합 하고, 취업 가능 범위 확대 (2024년 4분기 ~)

국적에 따른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요건 차별을 해소하고, 동포 취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⑦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기본 기술창업 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요건 | D-8-4(S)

1단계	2단계
민간평가위원회 사업성 및 혁신성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서 발급

· 더 많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가능!

기존 기술창업 비자 발급 요건 | D-8-4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20 선정	3천만 원 이상의 정부창업지원사업 선정
------------------	---------------------------	-----------------------------

*세 가지 경우 모두 '변인'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주요 개선사항 3p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 Start-up Korea Special Visa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④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기존 AS-IS	개선 TO-BE
동반가족의 취업 범위가 제한되어 사회경제적 통합 저해 요인으로 적용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가 요건을 갖추면 단순노무 취업 을 허용해 우수 인재의 안정적인 가족단위 체류와 통합을 지원 (2024년 4분기)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④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사항 5p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 Start-up Korea Special Visa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과정 | D-8-4(S)

1단계 신청·접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K-스타트업 포털, GSC 홈페이지	2단계 평가 사업성·혁신성 평가 민간평가위원회
4단계 비자신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재외공관 방문 추천대상자(외국인)	3단계 추천 특별비자 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5단계 최종발급 법무부	

주요 개선사항 4p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 Start-up Korea Special Visa



평택시, '고려인 가족사와 함께하는 가족 문화제' 다양한 행사 마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12월 20일 포승노동자복지회관에서 고려인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인 가족사와 함께하는 가족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택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인들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을 비롯해 ▲고려인어린이합

창단 ▲시 낭송회 등 문예발표 ▲고려인 청소년 k-pop댄스 ▲평택노인복지관 두드림봉사단의 축하공연 ▲고려인 성인합창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현순 평택시여성보육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려인들이 본인들의 역사와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내외 국민 모두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평택시에서도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꾸준히 증가하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시 관내 고려인 단체 등과 연계해 본격적인 고려인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외국어 우수청소년 명에 홍보대사 위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12월 27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국관광고등학교 학생 3명을 평택시 청소년 '명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청소년 '명에 홍보대사'는 관광특성화 고교인 한국관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로 영어 부문의 관광영어통역과 박경서, 일본어 부문의 관광일본어통역과 김민경, 중국어 부문의 관광중국어통역과 윤나훈 학생이 각각 선발되었다. 이들은 졸업 시까지 평택시 주요 축제와 행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와 관광 홍보를 맡으며, 평택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촉식에서 "청소년 '명에 홍보대사'로서 평택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라며 "평택시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요리로 다진 영어

'쿡스토랑' 마무리

평택시국제교류재단에서 진행한 영어 요리 교실 '쿡스토랑'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간 성황리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이들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요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는데, 매달 그달에 어울리는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 부분까지 더해져서 참여자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2015년부터 평택영어교육센터를 통해 남부, 북부, 서부에서 각각의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평택시민의 언어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영어 요리 교실 프로그램은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서부영어교육센터 요리 체험교실에서 진행되었고 각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큰 인기를 끌었다. 이지은 기자

교육 취약계층 위한 2024년 하반기 '드림교육' 진행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인 학교를 우선 선발해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드림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택시 관내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영어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배려자 및 다문

화 가정의 학생이 다수인 학교를 우선으로 선발했으며, 올해 하반기 사업 대상으로는 청북초등학교가 선정됐다.

하반기 드림교육은 총 14차시 수업을 통해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다.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는 교과서를 심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듣기, 쓰기, 말하기 수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흥미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 전, 후에 시행했던 실력 테스트의 결과에서 전체 평균이 44점에서 71점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점

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증명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드림교육을 통해 사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평택시청 031-8024-5000 평택시가족센터 031-615-3959 평택시외국인복지센터 031-652-885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031-8024-9600
평택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031-618-1366 평택국제교류재단 031-692-4301~3 송탄보건소(외국인 진료) 031-8024-661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크리스마스도 가족사랑과 함께해요!
용인시가족센터, '행복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운영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는 지난해 12월 18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 가족사랑의 날 행복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용인시 내 약 70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으며 스노우볼리지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소통하고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일부 참여자들은 "어린이집에서 산타 행사가 없어 아쉬워했는데 좋아했어요", "연말인데 아이와 어떤 걸 해

야 할지 막연했는데 너무 즐거운 추억 만들었습니다." 등의 소감을 남기며 즐거운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는 점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자는 날로, 바쁜 주중 수요일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정부 지정 캠페인이다. 이에 용인시가족센터는 매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가족 친화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책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용인 공공도서관서 겨울방학 독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의 17개 공공도서관에서 독서 교실과 방학 특강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독서교실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17개 공공도서관(포곡.동백.모현.청덕.남사.양지해밀.이동꿈틀.기흥.보라.흥덕.서능.영덕.수지.죽전.상현.성북.동천)에서 진행된다.

각 도서관에서는 1.2월 중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특강도 진행한다. ▲동백도서관은 그림책과 보드게임을 하며 수 개념을 익히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창의 수학 보드게임(초1~2)'과 '큐브야 놀자(초3~4)'를 운영한다. ▲모현도서관은 '나만의 캘리그래피&나만의 도장 만들기(초3~6)'를, ▲청덕도서관은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

는 '재미 팡팡! 과학 놀이터!(초1~3)'와 '경제야 놀자(초4~6)'를 운영한다.

▲기흥도서관은 직접 친환경 건축물을 제작하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건축 이야기(초1~3)'와 다양한 신화를 읽고,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 로마신화(초4~6)'를, ▲서능도서관은 동화책을 읽으며 사계절의 변화와 특징을 배우는 '말랑말랑 사계절 동화 클레이(초1~3)'를, ▲영덕도서관은 오감놀이를 통해 몸의 다양한 감각들을 배우고, 감각기관의 협응 능력을 발달시키는 '펼쳐라! 놀이 백과사전(초1~3)'을 진행한다. ▲보라도서관은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코딩으로 만나는 세상(초3~5)'을, ▲상현도서관은 궁궐을 나만의 북아트로 만드는 수업인 '조선의 5대 궁궐 탐험(초1~2)'과 영어 그림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재미쑥쑥 영어 원서 특강'을 준비했다. ▲죽전도서관은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숲과 하천이 좋아요(초1~2)'를, ▲동천도서관은 서양미술의 시대별 대표작을 배우고,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는 '키즈아트, 서양미술 속으로(초3~6)'를 운영한다.

도서관별 자세한 강좌 내용과 모집 일정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김영의 기자

새해 맞아 1월 한 달 용인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 10% 지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월 충전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다. 30만원을 충전하면 총 33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용인와이페이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음식점이나 병원, 학원 등 2만 60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용인와이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의 형태로 '삼성페이' 사용자는 앱에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는 올해 용인지역화폐 자금 운영을 통해 총 7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시가 이처럼 많은 이자 수익을 얻은 것은 정기예금계좌와 MMDA를 활용해 월별 자금 수요와 예금 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이 이자 수입을 시 재정으로 귀속해 지역화폐 발행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용인시, 새해에 독서마라톤으로 다문화가정도 독서 습관 들여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독서 장려 프로그램의 일환인 '독서마라톤' 대회를 오는 1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한 이 대회는 2016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현재는 용인특례시의 대표적인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하면 책 1쪽을 2m로 환산해 목표 거리에 도달하게 되고, 자신이 설정한 독서 코스를 완주해 나가는 독서 캠페인이다. 대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아 ▲초등 독서노트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청소년 ▲일반(성인) ▲가족(최대 5명) 7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유아'와 '초등 독서노트'를 제외한 참가자들은 걷기(5,000m), 단축(10,000m), 하프(21,100m), 풀(42,195m) 등 4개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책을 선정해 읽은 후 초등학생의 경우 책 1권당 50자 이상, 청소년부터는 1권당 100자 이상의 서평을 독서마라톤 홈페이지에 작성해야 한다. '유아' 코스는 서평을 쓰는 대신 대회 기간 내 시 공공도서관에서 130권을 대출하면 완주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 독서노트' 코스는 대회 기간 내 80권 대출 이력과 50편 이상의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면 완주로 인정한다. 김영의 기자

韩国名校毕业获得学士学位, 外国劳动者、多文化家庭实现梦想!

庆熙网络大学为外国人开设在线学士学位课程... 学费也便宜 경희사이버대 글로벌자율학부

居住在韩国的外国劳动者的梦想是什么? 就是拥有稳定的签证和家人一起居住并多赚钱。为回应移民们过于简单和明确的愿望, 韩国政府最近也发表了新的签证政策。但是即便有了E-7-4签证的K-Point政策和F-2-R签证的地域特化签证政策, 外籍劳动者依然难以轻松挑战。对于那些不能适应韩国社会, 只能在工厂或饭店工作的多文化家庭来说又是怎样的呢? 希望找到更好工作的多文化家庭, 在适应韩国社会和就业方面可以采取什么措施呢?

那就是提高韩语能力和获得大学毕业学历。但是移居民同时兼顾工作和学习韩语并不容易。更何况, 在韩国大学毕业需要很多费用和时间, 所以非常困难。但是能够轻松克服这两个困难的学士学位项目诞生了!

在韩国大学毕业, 真的可能吗?

庆熙网络大学(校长: 변창구)在韩国教育部的支持下, 新设了全球自主学部, 为外国居民提供稳定、高质量的教育服务。这所大学的所有课程和考试都在网上进行, 所以可以在工作的同时完成学业。学费怎么样呢? 与韩国其他大学的年学费700万~900万韩元相比, 庆熙网络大学全球自主学部给所有学生提供50%的奖学金, 年学费仅为151万2千韩元。另外, 通过协议可以享受更多的奖学金优惠。

首先, 通过无专业进入该大学后, 一年级课程将重点学习适应大学生活和强化基础能力。主要科目有大学韩国语1和2、韩国社会和大学理解、专业探索和学习战略、全球领导力等。学生们在选择自己的专业

之前, 可以通过职业规划和多样的专业探索, 找到适合自己的发展方向。之后2~4年级时可以选择IT、电子信息、经营、旅游、韩语等多种专业进行深化学习。

不会说韩语, 怎么办?

庆熙网络大学即使不会韩语也可以入学! 无论韩语实力如何, 只要拿到录取通知, 入学前可以在该大学韩语中心接受“桥梁课程”, 即韩语研修。还能获得6个学分, 所以很好。入学后可以交替听大学韩语课程和韩国语研修课程, 培养实力。但是要想跟上韩语课程, 实际上需要3级以上的实力。如果学生考取话题四级, 还可以获得奖学金。

大学毕业有什么好处?

那么从庆熙网络大学毕业的话, 在韩国有什么优势呢? 庆熙网络大学的前身是韩国的名牌私立学校庆熙大学, 当然4年制学位也获得认可。

特别是, 取得学士学位在获得E-7-4签证方面可以获得20分, 大学毕业过程中顺利获得TOPIK4级的话, 还可以追加获得120分。可以说取得E-7-4签证并不难。此外, 当前备受关注的的地区特化签证, 拥有韩国大学学历的外国人也能获得加分, 非常有利。

在韩国大学毕业的越南出身的李智恩(音)说:“在韩国大学学习之前, 我觉得自己无法融入韩国社会”, “但是大学毕业后, 得到了很多韩国人的认可, 产生了成为韩国社会一员的自信。尤其对理解韩国社会、社会成员参与起到了很大的帮助。”

奖学金优惠和医疗费减免

庆熙网络大学原本学费低, 但全球自主学部的学生还可以通过入学考试、生活奖学、成绩奖学等多种奖学金制度, 进一步减少学费负担。最近庆熙网络大学97.3%的新生和插班生都获得了奖学金, 特别是全球自主学部的学生从入学到毕业都获得了50%的奖学金。另外, 该大学还为学生提供庆熙大学医院及江东北庆熙大学医院的10%医疗费用减免, 并为移民免费提供医疗翻译服务。

庆熙网络大学的全球自主学部可以提供韩国生活所需的多种知识和融合教育, 帮助学生成为公司社长和同事们认可的全球性人才。

如何报名入学?

庆熙网络大学全球自主学部2025学年第一学期第一次新生招生截止到2025年1月14日, 第二次招生截止到2月14日。报名只需通过电脑或手机登录庆熙网络大学入学申请中心网站(go.khcu.ac.kr), 通过填写入学申请书、审核资料等程序进行报名即可。

庆熙网络大学全球自主学部徐珍淑(音)教授表示:“我们希望培养移民和外国学生的学术和实务能力, 为他们在全球社会能够自信地活动提供机会”, “如果在庆熙网络大学学习, 将有助于移民在韩国建立稳定、成功的生活基础”。

有关入学的详细内容请访问入学申请中心官网(go.khcu.ac.kr)或拨打招生咨询电话(02-959-0000)进行确认。〈한글 기사 5면〉 과파야스토리

지원자격	
이주배경 상인학습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배경 가정의 자녀, 해외거주 외국인
한국어 어학능력 증명서류 제출 필요 조건	
일반 전형	한국어 어학능력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증명서류 제출 필요 내재 요건 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점 이상 ②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정규 과정이 이수 또는 세종한국어평가 296점 (중급) 이상 * TOPIK 2급 이하 및 미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 내 학부에서 지정된 한국어연수(6과목) 수강 필요 * 입학 전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센터 디딤과정(한국어연수) 수강 시, 입학 후 6학점 인정함

매력	
글로벌자율학부 장학	
졸업시까지 학기당 수업료 50% 장학(18학점 기준, 한 학기 납부금액 756,000원)	
등록금 1,512,000원	등록금 (상)납부액 756,000원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강의 영상 다국어 자막	다국어 학습자료 강의노트
다국어 지원 실시간 화의 시스템	다국어 홈페이지
24시간 AI 다국어 챗봇 상담	
One-stop 통합지원 및 지도교수제	
원스톱 통합지원 졸업까지 필요한 정보·정정 지원 및 상담	지도교수제 11 맞춤형 학업 상담, 진로 지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S-UP)				
학업(學UP)	취업(僱UP)	창업(創UP)	커리어업(UP)	심업(心UP)
- KHCU 전국의 날(전공별/과)	- K-기업 문화의 이해	- 전로기반 글로벌 창업 캠프	- KHCU 글로벌 탐방	- KHCU 다문화 사회봉사
- 국제 클리닉(한국어 교실)	- 워킹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이주민 창업가 성공사례 특강	- 커리어 멘토링	- 이공언어 재능 기부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센터 디딤과정				
- 입학 전후 기초 수준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디딤과정(한국어연수) 운영				
- 디딤과정 이수 시, 최대 6학점 인정. 예비 신입학생 및 입학 후 1년 내 디딤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수강료 50% 지원				
이주배경 학습자 맞춤 지원				
Visa Tips	한국어 능력 지원 프로그램	외교혜택		
- TOPIK 4급 + 학사 학위 취득 시, E-7-4 비자 발급에 필요한 K-point 140점 확보 가능 * 비자 신청 필요 접수 200점 중 TOPIK 4급 120점, 학사학위 취득 20점	- TOPIK 응시료 지원 (2회) - TOPIK 4급 이상 취득 시 장학금 지급	- 경희의료원 환인 - 이주민 대상 의료안내 서비스 (리퍼터시) - 무료 구독권 제공 * 처방전, 약어플 등 의료 관련 정보 16개 언어 번역 지원		

겨울방학, 가까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방학 맛이 체험프로그램 참여해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겨울방학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에서는 ‘2025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동계캠프’(2박3일)를 개최해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과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등 전국 300여개 기관의 9,600여 명에게 겨울방학 동안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세계시민과 공동체를 주제로 ‘2025년 동근세상 만들기 행복 공감 청소년캠프’를 진행하고,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원예 등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험하는 ‘겨울방학 생명과학캠프’를 진행한다.

올해 7월 부산에 개원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자연과 함께하는 을숙도 생태계 탐방과 식물 펄프를 활용한 종이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케이팝(K-Pop) 방송댄스,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보드캠프, 가상현실(VR)영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

야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겨울방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또는 봉사활동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 및 모바일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활동’과 같이 ‘지역명(시군구명)+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들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해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겨울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필리핀 이주민, '행복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함께하는 우리 이야기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필리핀 자조모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더 가까운 우리"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해 12월 22일 필리핀 자조모임과 함께 외국인주민을 위한 뜻깊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의 외국인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연말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행사는 시작부터 특별한 응원의 메시지로 의미를 더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기를 보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용인특례시의회는 다문화사회의 화합을 위한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주민들은 직접 모금을 통해 준비한 음식, 상품, 그리고 경품을 행사에 기부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다양한 게임과 장기자랑도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는 필리핀 자조모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로, 참석자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김용국 센터장은 개회식에서 “앞으

로도 이러한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며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자조모임과 협력하여 다문화 사회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자조모임은 올해 리더가 변경됐다. 새로운 리더인 김연정, 레벨린 가즈시아씨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

께 감사드린다.”라며 각 임원진과 회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에 쏟은 정성과 열정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연말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리더들을 비롯한 자조모임 참여자들에게 따뜻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와 필리핀 자조모임이 함께한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 사례가 됐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김영의 기자



베트남 공무원, 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방문...환경 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2월 17일 베트남 호치민시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 20여 명이 처인구 남동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연수단 일행은 이날 허형조 단

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안내를 받아 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찾았다.

이들은 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운영 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주요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홍보관, 교육관, 마평습지 등을 견학했다. 용인특례시는 베트남 연수단에게 주요 시설과 프로그램, 전시물 등을 설명했다.

견학에 참여한 베트남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전시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라며 “이 같은 사례가 베트남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홍콩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해외에서 기후변화체험센터를 찾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기후변화체험센터를 더욱 이용하기 편하게 개선하고 프로그램도 잘 갖춰 국내는 물론이고 국

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연수단은 대한민국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통해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주관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와 기업을 방문하고 워크숍을 갖는 등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우수사례를 학습해 본국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아듀, 2024! 다양한 가족과 함께한 광명시가족센터의 눈부신 성과'

광명시가족센터, 각 사업 별로 수료식 및 간담회 진행... 성과 돌아보고 2025년 준비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12월 21일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2024년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4년 광명시가족센터는 5개(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온가족보듬사업, 라떼파과, 다문화가족 기초학습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지원사업)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31개의 사업을 운영했다.

센터 프로그램에는 2024년 한 해동안 연인원 14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비다문화가족이 99,529명, 다문화가족이 39,708명 참여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2024년 성과공유회를 대신하여 사

업참여자와 함께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 각 사업별 수료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11월에는 ▲좋은 배우자학교 ▲1인가구지원사업 중장년수다살롱 ▲1인가구지원사업 힐링치유농장 ▲다문화자녀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다문화강사양성교육 등의 수료식이 진행됐다.

12월에는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사업(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기초학습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지원 수료식이 진행됐으며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다문화이해강사과연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강사 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을 돌아보고, 참여자들과 함께 2025년 각 사

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은정 센터장은 “각 사업의 수료식을 통해 올해의 성과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5년에도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2025년에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애 주기별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방문 또는 ☎02-6265-1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기초학습



1인가구 힐링치유농장



좋은 배우자 학교

광명시 최초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 문 열어...6~12세 초등학생에 돌봄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 첫 번째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명시는 20일 오후 2시 광명광덕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인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시의장, 이용현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용호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전성화 광명광덕초 교장, 유관 기관 관계자, 이용아동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행정복지센터 등 안전성과 접근성이 좋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자녀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학교 내 유휴 교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광명시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광명광덕초 3개 기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휴 교실 2실(135㎡)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6~12세 초등학생 40명에게 정기·일시보호, 급·간식 및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광명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아이돌봄 걱정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번 개소로 총 9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박승원 시장은 “학교 돌봄교실만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이번 돌봄센터를 열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잘 성장해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5년 중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특별 자진출국기간에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1년만에 돌아온 이유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법무부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에요.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올해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돼요.

입국규제 면제, 진짜야?

많은 외국인들이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에게 정말로 입국규제 면제의 혜택이 부여되는지 궁금해 해요. 실제로 입국규제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는 법무부의 입국규제 명단에 오르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한국에서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모국에서 다시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입국규제 명단에는 이름이 없지만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비자 담당 영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자 담당 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절하게 돼요.

몇 년 동안 입국 못하는 거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5년 동안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인도 주의적인 사유가 있으면 더 일찍 입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아내를 따라서 입국한 남편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가 자진출국한 경우 5년 이내에는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남편이 자진출국하기 전 아내가 임신했고 남편이 모국에 가 있는 동안 아내가 출산을 하여 혼자서 학업과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경우는 누가 봐도 인도주의적인 사유라

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남편의 비자 발급이 거절됐어요.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출국 1년만에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있어요. 이처럼 매우 확실하고 타당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는 어려워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11면, 러시아어 21면, 태국어 11면, 영어 21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6개 언어로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特别自愿出国期间出国的非法滞留外国人,时隔1年再次回来的理由是什么?

法务部决定将原计划运营到11月30日的“非法滞留外国人特别自愿出国期间”延长2个月至2025年1月31日。

此次延长措施是考虑到给更多的非法滞留外国人提供自行出国的机会,以及考虑到年末年初连休等原因难以预订回国航班等。

在特别自愿出境期间内自行出国的非法滞留外国人可以享受▲免除非法滞留罚款▲免除入境限制等。

但是今年9月30日以后非法滞留的外国人和偷渡者、伪造护照者、刑

事犯、不履行出国命令者等除外。

免除入境限制,真的吗?

很多外国人很好奇,在特别自愿出国期间,离开韩国的外国人是否真的得到了免除入境限制的优惠。实际上确实有免除入境限制的优惠。但这只是没有列入法务部的入境限制名单而已。

“从韩国自愿出国的非法滞留外国人为了再次来到韩国,如果向韩国大使馆申请签证,签证负责领事就可以确认,虽然入境限制名单上没有名

字,但是在韩国非法滞留的记录仍然存在。因此,负责签证的领事会拒绝签发签证。

多少年不能入境?

即使非法滞留的外国人自愿出国,一般5年内也不能入境韩国。有很多外国人询问有没有其他方法,如果有人道主义理由的话,可以入境。

例如随着在韩国读研究生院的妻子入境的丈夫成为非法滞留者后主动出境的情况,5年内很难再次入境。但是在丈夫主动出国之前,妻子怀孕

了,丈夫在母国期间,妻子分娩,需要一个人进行学业和育儿,这种情况属于人道主义事由。

当然在这种情况下,起初丈夫的签证被拒绝了。但是妻子没有放弃,而是向国民权益委员会提出投诉。国民权益委员会认为发放签证是妥当的,实际上有过出国1年后进入韩国的事例。如果没有如此明确、妥当的人道主义理由,很难在5年内再次入境韩国。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겨울철 주거취약계층 집중 발굴...겨울철 주거취약 거주자 발굴

광명시(시장 박승원) 주거복지센터는 3월까지 겨울철 주거취약계층 집중 발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주거취약계층 발굴 협조 요청을 위해 소하동, 하안동, 광명동 단독 필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사

업 취지를 설명하고, 점포 내 홍보물을 비치해 점주와 시민들이 주거환경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1월부터 3월까지는 비주택 거주자 현장 발굴을 위해 PC방, 만화방 등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발굴된 주거취약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자원과 연계하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추운 겨울철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선제적 지원으로 시민의 주거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거복지

센터는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사례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주거복지 정책사업과 특화사업 등 시민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전화(02-2680-6003)나 센터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은 주거 방문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Strengthening 'specialized training' to help E-9 workers adapt to industrial sit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 Korea has finalized its 2025 budget and announced how much money will be spent on which projects. Government agencies that are run by taxpayers have a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n projects and budgets to the public.

Looking at the information announced this time, we can see how much budget will be spent on which areas for the employment of foreign residents. Let's organize this information.

Training skilled workers

Foreigners working in Korea with E-9 visas face various difficulties in Korean industrial sites. The sites themselves are unfamiliar, and they are seeing various machines and tools for the first time and do not know

how to use them. Furthermore, since they have to work and live in Korean, it is not easy to adapt. Therefo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decided to expand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for foreign workers next year.

①E-9 Specialized Training: This program is to educate E-9 workers on basic job skills in cooperation with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r local industries. You will be trained on how to use various machines and tool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basics of your job, and in particular, you will be able to communicate in Korean to some extent in manufacturing sites. Specialized training can be applied for by employers, not foreign workers. It is

usually operated as a 4-week course, and we plan to train 6,000 people next year. We also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ized training centers for non-professional foreigners and operate them next year.

②Polytechnic Korean language training: Polytechnic universities in Korea originally run vocational training courses. They decided to conduct technical Korean language training by having foreigners participate in this course. As a pilot project, 50 foreigners can participate.

③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work and study: It is difficult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do things like company exploration, job training, and visa conversion on their own while attending school. According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lans to support a training program for 1,000 international students next year so that they can systematically work and study at the same time.

④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suppor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lans to systemize and expan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next year so that foreign workers, who suffer from industrial accidents at a higher rate than domestic workers, can work safely. It will also develop more multilingual educational content. It has also decided to strengthen support activities such as counseling for foreigner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industrial sites.

〈한글 기사 7면〉

과파야스토리

경기도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지원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개시
2024년 7월 1일부터

이용대상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으로 등록된 아동

※ 정회원 등록 방법
홈페이지 (www.idolbom.go.kr) 회원가입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 통지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카드, 신한카드) 필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신청시간 및 방법

- 365일 06시~22시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앱 직접 신청
- 평일 09시~18시(근무시간)
각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전화 신청
- 평일 18시~22시, 주말 및 공휴일 08시~20시
인제나돌봄 콜센터(010-9979-7722) 전화 신청

이용 가능시간
24시간

참여 시·군
가평, 광명, 구리, 남양주, 동두천, 수원, 시흥, 안성, 평택, 화성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기본)

- 2~4시간 전 및 단시간(1시간) 신청 건당 4,500원 추가
- 평일 심야(22시~06시) 및 일요일·휴일 주간 이용 시간당 17,440원(50% 증액)
- 일요일·휴일 심야(22시~06시) 이용 시간당 23,260원(100% 증액)

※ 소득유형에 따라 결제금액 변동가능

참여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시·군명	센터명	전화번호
가평군	가평군가족센터	031-582-9902
광명시	광명시가족센터	02-2625-0365
구리시	구리시가족센터	031-551-3133
남양주시	남양주시가족센터	031-554-8211
동두천시	동두천시가족센터	031-863-3363
수원시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245-1319
	시흥시가족센터	031-317-4516
시흥시	경기시흥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031-313-1165
안성시	안성시가족센터	031-674-0130
평택시	평택시가족센터	031-692-7750
화성시	화성시가족센터	031-223-0333

※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031-898-9748

경기도 인제나돌봄 콜센터 ☎ 010-9979-7722

2025년 설맞이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 → 20% 상향

최대 100만원 충전시 ▶ 120만원 사용 가능

기간: 2025. 1. 1.(수) 오전 9시
~ 특별예산 소진 시 까지

※ 특별 예산소진 시 자동 종료
※ 2월~3월 최대 50만원 충전 가능
(10% 인센티브)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 02-2680-6326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광명시, 3월까지 위기가구 집중발굴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에 나선다.

이번 발굴 대상은 계절형 실업자, 거동 불편자,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다.

광명시는 47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위기징후 정보 기존 44종에 노후연금 지급 대부 정보,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정책 서민금융 반려 내역 등 3종 정보가 추가돼 한층 더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1월 전국으로 확대된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으로 한층 더 세밀한 발굴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촘촘한 발굴 활동도 이어간다. 다중이용시설 업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희망평동사업단 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1천700여 명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특히, 광명시는 사회복지국장을 단장

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보건정책과 6개 부서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TF’를 운영해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적 취약계층 집중 보호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주거취약 노숙인 빈민 지역 순찰 ▲한파 대비 사회복지시설·한과쉼터 점검 ▲건강취약계층 집중 방문간호 지원 등 부서별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광명시는 발굴된 위기가구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공적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신속하게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난방비, 공과금, 보일러 교체, 겨울 이불,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모든 부서가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광명시가족센터와 광명시청에 꼭 문의하면 좋겠다.

송하성 기자

‘슬기로운 운동생활’ 참여자 모집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 1월 8일까지 선착순

광명시(시장 박승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5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슬기로운 운동생활’ 1기 운동교실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가, 요가·필라테스, 댄스 다이어트, 근력운동 등 4가지 종목으로 구성되며, 2025년 1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 2회,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시작 전후 혈압, 혈당, 인바디 등 기초 건강검사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3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층이다. 광명시 거주 주민이

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광명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광명e지(ill.g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나기호 건강위생과장은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운동과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 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보건소 누리집(gm.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지역화폐 인센티브 20% 상향

광명시, 민생경제 수혈...충전 한도도 올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수혈에 나선다.

광명시는 2025년 1월부터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1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 인센티브(할인율)를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한다.

또 같은 기간 충전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린다.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충전하면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불황 장기화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고물가, 고유가에 탄핵 시국까지 삼중고에 빠진 지역 상권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대폭 상향을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국비 지원이 크게 줄었음에도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연중 유지하는 등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충전 한도는 평시 30~40만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절 등 성수 시즌에는 50~70만 원까지 늘려 소비를 진작하고 있다.

광명시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1천504억 원으로 목표액 1천200억 원을 125% 초과 달성했다.

송하성 기자

임산부 영유아는 신속 입장한다

광명동굴 맞춤형 이동약자 패스트트랙제도



2025년부터 광명동굴을 찾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들의 관람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동굴 맞춤형 이동약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임산부와 7세 미만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성심당의 임산부 우대 정책 등을 벤치마킹해 광명동굴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됐다. 특히 여름 성수기와 축제 기간 등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들은 별도의 대기 없이 입장권을 발급받고 곧바로 동굴에 입장할 수

있어, 한층 더 편안한 관람이 가능해진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그 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광명동굴은 다자녀 가족 우대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패스트트랙 제도는 그 연장선”이라며 “이 제도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의 모범사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동굴은 광명시 가학동 가학산에 위치한 폐광이지만 총연장 7.8km에 달해 수도권에서 드물게 만날 수 있는 동굴이자 광명시가 운영하는 테마파크다. 광명동굴은 한국 100대 대표관광지와 경기도 10대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겨울철 빛 축제 등 절기마다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해 인기를 얻고 있다.

송하성 기자

새해,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과천시 정보 확인하고 같게요~

과천시, 청년정책 수립, 공영주차장 요금 방식 개선,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등 확인

#과천시, 청년정책 5개년 수립

과천시(시장 신계용, 사진)는 2025년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청년친화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와 교류 확대, 구직 지원 강화,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중장기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해 청년친화도시로의 지정도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청년 면접장 대여사업'을 확대 개편한 '청년면접 모두드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1월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면접장 대여뿐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면접 준비 서비스로,

구직 청년의 면접 준비 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들이 과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과 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포털'을 구축한다. '청년포털'은 과천청년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사업 중 하나로, 2025년 상반기 개발을 완료해 하반기에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방식 개선

과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과천시는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2025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되어,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

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

과천시는 그간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편으로 1일 상한 요금과 월정기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2025년부터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는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차요금과 부과 방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 적용된다. 과천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과천시는 2025년부터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주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토지 소유주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에 맞춰 결정 공시일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정보와 결정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과천시 소재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과천시 열린민원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문자가 발송된다.

김영의 기자

2024-2025 문원체육공원 야외스케이트장
2024.12.20.(금) - 2025.2.9.(일)

개장행사
12월 20일(금) 오후 5시 30분

장소
문원체육공원

이용료
과천시민 회차당 2,000원 (관외시민 4,000원: 장비대여료 포함)

문의 02-507-5551 www.gcskate.co.kr

운영시간 ※ 휴일 및 별도 공지
10:00 ~ 20:00 (월요일 ~ 목요일)
10:00 ~ 21:30 (금, 토, 공휴일)

성탄전야(12.24) / 송년제야(12.31) 22시까지 연장운영

2025 설 명절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역화폐 과천토리 10% 특별할인

할인가간 2025. 1. 1.(수) ~ 1. 31.(금) [한 달간]

할인사항 월 인센티브 할인율(10% 확대)
· 카드형 : 구매한도 70만원(할인율10%)
· 지류형 : 구매한도 10만원(할인율10%)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내
연중무휴, 매일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운영기간 2025.1.1.(수) ~ 2025.12.31.(수)

대상약국 케어약국

운영시간 365일 밤 10:00 ~ 익일 01:00

약국주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42, 116-1호(별양동, 6단지 상가)

연락처 02-504-1381

과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안내
변경 후 요금표(2025. 1. 1. ~)

구분	구역	1회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권 (신분)
		1구획 5분당	1일 상한요금	
공영 주차장	1급지	300원	28,000원	110,000원*
	2급지	250원	24,000원	150,000원
	3급지	150원	14,000원	70,000원
	4급지	100원	7,000원	50,000원
5급지	관내주민	70원	7,000원	35,000원
	관내사업자, 종사자, 법인 등록차량	150원	14,000원	70,000원
	관외주민	300원	28,000원	120,000원

* 단, 경마공원 주변 월정기(경마일, 비경마일 포함) 주차의 경우 1급지와 4급지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문의처 : 02)504-7300(과천도시공사) [자세히 보기](#)



연천 지역소식을 다문화가족에게!

연천군-연천군가족센터, 다국어소식지 제작 협약

연천군은 지난해 12월 20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연천군가족센터와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 제작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는 김덕현 연천군수, 조금량 연천군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 제작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 홍보 및 마케팅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연천군가족센터는 이에 필요한 다국어 번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중 지자체와 센터가 협력해 다국어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은 연천군이 처음이다.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는 올 1월부터 연천군 관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국

적별 거주 인원을 고려해 베트남어 등 2개 언어로 우선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연천군은 효과적인 군정소식 전달을 위해 군정소식지 연천사랑을 매월 4,000부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천사랑 점자소식지로 확대 발간했다.

올 1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소식지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소식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가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정보에 취약하기 쉬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2025년에 ‘연천FC’ 출범한다 연천군, K4리그 축구단 협약



연천군은 19일 군청 본관 2층 군수실에서 주식회사 에프씨충주와 2025년 K4리그 참가를 위한 운영 및 관리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에프씨충주는 K4리그 축구단 ‘FC충주’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번 협약에 따라 연고지를 연천군으로 이전하고 팀명을 ‘연천FC’로 변경해 2025년 K4리그에 참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축구단의 윤현영 대표, 김병수 총감독, 최정민 감독 등이 참석하여 연천군 축구 발전과 구단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을 연고로 하는 축구단, 연천FC가 연천군민께 즐거움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며 “축구단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경기장 시설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영 대표는 “연천군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선수들과 함께 하며, 내년 K4리그에서도 연천FC가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에게 도움 될 연천 정보,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천군은 오는 1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에 거주하며 흡수 연도에 출생한 51세부터 70세 이하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약 2만2000원의 자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검사 등으로 추가적으로 농작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와 예방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연천군은 대상자를 모집해 3월부터 관내를 이동하는 의료기관 검진버스 통해 검진할 예정이다. 검진대상자는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진차량을 통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2월 검진대상자 모집

을 통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월 14일까지며, 전체 사업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연천군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2022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독립경영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배우처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며, 영농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최대 5억원 한도)을 연계 지원한다.

신청 후 서류평가(2월) 및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 동안은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6개 언어로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해 12월 17일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의 마지막 단계인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자격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특강을 포함해 총 23회 69시간의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해 강의 기획,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안 작성 및 시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의 강의 준비 역량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총 9명의 교육생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으며, 수료증과 기념품을 받았다. 또한 <글로벌민주시민강사-다문화이해교육> 민간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만 출신의 교육생 한교진 씨는 “이번 과정을 통해 강사로서의 역량을 다질 수 있었다. 내년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족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박미경 센터장은 “사전교육부터 자격과정까지 총 63일, 189시간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2025년에도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2227)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 장학관 입사생 438명 16일까지 모집...부담금 20만원



화성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화성시장학관'의 2025년도 입사생을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화성시장학관은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화성시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울 소재 장학 기숙사다. 시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작나래관'과 도봉구 창동의 '도봉나래관' 두 곳을 운영 중이다. 장학관별 선발 인원은 ▲동작나래관 219명(남 85명, 여 134명) ▲도봉나래관 219명(남 60명, 여 159명)이다.

입사생 부담금은 식비를 포함해 월 20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선발 모집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입학(예정)생이거나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신입생의 경우 수험료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대학원생은 지원할 수 없다.

원서는 신청 기간 내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선발기준은 생활수준(70점), 학업성적(15점), 통학 거리(5점), 관내 거주(10점) 등이며, 최초 합격자는 2월 12일에 발표 예정이다. 신동호 화성시 평생교육과장은 "입사생들은 학문은 물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화성형아이키움터, 아빠와 자녀 함께 독서연계 주말프로그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화성형아이키움터는 지난해 11월 30일 새솔점과 12월 14일 향남점에서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독서 연계 요리 프로그램 '고양이만한 호랑이 만쥬'를 통해 특별한 주말을 선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6-7세 자녀를 둔 아빠들을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바쁜 주중 업무로 인해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했던 아빠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단순한 요리 수업에 그치지 않고, 동화 읽기와 요리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은 아이와 아빠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했다. 요리라는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공유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

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로 작용했다.

참여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 아빠는 “아이와 함께 요리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이 정말 뜻깊었다”라며 “이런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와 소통할 수 있어 새로웠다”며 주말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화성형아이키움터는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주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2025년에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비중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하고, 가족 모두가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Won a prize and visa in Korea for an idea to reduce drug waste!

'K-Startup Grand Challenge' 8 Startup Teams Announce Results at Demo Day

When coming to Korea to work, many foreigners often think about obtaining an E-9 visa. However, rather than working at a Korean factory with an E-9 visa, how about getting a 'Startup Korea Special Visa' or a Technology Startup (D-8-4) visa and working in Korea as an entrepreneur, albeit at a small compan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eld the '2024 K-Startup Grand Challenge' Demo Day at COEX in Seoul on December 11. Demo Day is a competition where people who are challenging startups show their achievements. About 100 people, including 40 foreign startup teams and domestic and foreign venture investors, attended.

The 'K-Startup Grand Challenge',

which began in 2016, is a program that supports excellent overseas startups to establish domestic corporations and settle in Korea. This year, a total of 1,716 teams from 114 countries around the world applied to participate.

After document screening and presentation evaluation, 40 teams were finally selected, and they entered Korea in September and prepared for this demo day under the care of domestic startup planners for about three and a half months.

On this day, at Demo Day, the top 8 teams, selected through an evaluation of commercialization achievements and a preliminary round by startup planners, presented their startup items and business plans, and the top 5 teams were finally selected to receive a total

of \$400,000 in prize money.

'Polymerize' (India) was selected as the best foreign startup team of the year, receiving a prize of \$150,000. 'Nanodropper' (USA) took second place, 'Open Energy' (Portugal) third place, 'Gimme Savor' (Spain) fourth place, and 'Murple' (China) fifth place, each receiving a prize of \$100,000.

The number one startup is a company that develops cloud-based AI material informatics software. It's not an easy field for most people to challenge.

But the second-place startup is working on a way to reduce drug waste, while the fourth-place startup is making plant-based protein products that can flavor meat, seafood, cheese, and more. The fifth-place startup is working on a document editing platform

that will help researchers write papers about five times faster.

How about it? Are you trying to change the world with just your own ideas, without necessarily having to deal with difficult areas?

At the awards ceremony that day, the top 20 teams, including the five teams receiving prize money, were announced, and they will be provided with follow-up support such as three months of commercialization funding and additional childcare to help them settle and grow in Korea.

If you have a challenging and innovative idea, don't give up and challenge yourself, even if you are a foreign resident!

〈한글 기사 9면〉

파파야스토리

Идея сокращения потерь лекарств принесла приз и визу в Южной Кореи! "K-Startup Grand Challenge 2024"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приезжающие в Южную Корею на работу, обычно задумываются о получении визы E-9. Однако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работать на заводах по этой визе, почему бы не попробовать получ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визу для стартапов (D-8-4) и работать в Корее в качеств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даже если ваша компания небольшая?

Министерство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 стартапов 11 декабря провело в COEX (Сеул) демо-день программы K-Startup Grand Challenge 2024.

Демо-день —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котором стартап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0 иностран

ных стартапов и более 100 венчурных инвесторов из Коре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О программе K-Startup Grand Challenge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запущена в 2016 году для поддержки создани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ностранными стартапами и их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е. В этом году в ней принял участие 1 716 команд из 114 стран. После этапов отбора и презентаций в финал вышли 40 команд,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в сентябре. В течение 3,5 месяцев они готовились к демо-дню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демо-дне команды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стартап-идеи и бизнес-планы. Среди

них выбрали 8 лучших, а 5 из них получили призовой фонд общей суммой \$400 000. 1-е место и приз в \$150 000 достался индийскому стартапу Polymerize, разработавшему облачно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на базе ИИ для анализа материалов. 2-е место (\$100 000) занял американский стартап Nanodropper, представивший идею сокращения потерь лекарств.

3-е место (\$70 000) получил португальский стартап Open Energy.

4-е место (\$50 000) занял испанский стартап Gimme Savor, производящий растительные белковые продукты с вкусом мяса,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 сыра.

5-е место (\$30 000) занял китайский с

тартап Murple, разработавший платформу для ускоренного написания научных статей.

Что думаете?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выбирать сложную область, чтобы менять мир. Многие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делают это с помощью простых, но эффективных идей.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были объявлены 20 лучших команд. Помимо призов, они получают поддержку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для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своих проектов и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смелая и инновационная идея, не сдавайтесь и попробуйте свои силы! 〈한글 기사 9면〉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가족센터 031-267-8787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사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이주민·외국인을 위한 학위과정 개설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율학부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 (1학년)

한국어기초(한국어센터), 대학한국어, 한국사회및문화이해, 전공탐색, 진로및경력개발 등 학습

선택이 가능한 학부(전공)·과 (2~4학년)



2학년 진입 시, 경희사이버대 모든 학부(전공)·과 중 선택 가능
(한국어능력+직업능력 향상)

재학생 혜택

장학지원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 시, 졸업까지 등록금 **50% 감면** 혜택
* 한 학기 등록금 : 756,000원 (6과목 등록 기준)

비자지원

·TOPIK 4급 취득 및 학사 학위 취득 시, E74 비자 발급에 필요한 K-point 140점 확보 가능
·TOPIK 응시료 지원 및 TOPIK 4급 취득 시 장학금 지급

학위취득

·온라인으로 정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취득
·경희사이버대학교 진학 후, 오프라인 대학교 편입 및 대학원 진학 가능

교육지원

·한국어센터 한국어 강의(디딤돌 과정) 수강료 **50% 감면**

의료지원

·경희의료원 의료비 할인 혜택
·의료 번역 서비스 지원(리터러시M)

QR코드



입학지원센터 go.khcu.ac.kr

입학문의 02-959-0000

글로벌자율학부 02-3299-8723

Khai giảng các khóa học cấp bằng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Xét tuyển vào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năm 1)

Học tiếng Hàn cơ bản (Trung tâm tiếng Hàn), tiếng Hàn đại học
Tìm hiểu xã hội và văn hóa Hàn Quốc, tìm hiểu chuyên ngành, hướ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ghề nghiệp, v.v.

Khoa (chuyên ngành)/khoa tự chọn (từ năm 2 đến năm 4)



Có thể tự chọn tất cả các khoa (chuyên ngành)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khi nhập học năm 2
(nâng cao kỹ năng tiếng Hàn + kỹ năng nghề)

Quyền lợi dành cho các sinh viên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Hỗ trợ học bổng

·Khi nhập học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sẽ được **miễn giảm 50% học phí** cho đến khi tốt nghiệp
* Học phí mỗi học kỳ: 756.000 won (khi đăng ký 6 môn)

Hỗ trợ xin cấp visa

· Khi đạt TOPIK cấp 4 và có bằng cử nhân, sẽ được đảm bảo đạt 140 điểm cần thiết để xin cấp visa E74
· Hỗ trợ lệ phí thi TOPIK và cấp học bổng khi đạt TOPIK cấp 4

Lấy bằng cử nhân

·Lấy bằng cử nhân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thuộc hệ chính quy 4 năm qua online
·Sau khi nhập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các bạn sinh viên có thể liên thông sang Trường đại học hệ chính quy hoặc liên thông lên hệ cao học

Hỗ trợ giáo dục

·**Miễn giảm 50% học phí** cho các khóa học tiếng Hàn tại Trung tâm tiếng Hàn (Khóa học Didimdol)

Hỗ trợ y tế

· Ưu đãi giảm giá chi phí y tế tại Trung tâm Y tế Kyung Hee
· Hỗ trợ dịch vụ dịch thuật y tế (Kỹ năng M)

Mã QR của trang ch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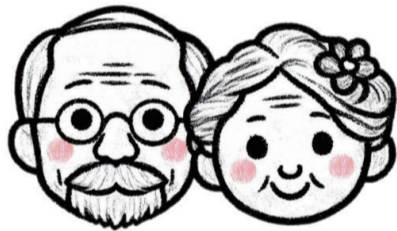


Trung tâm tuyển sinh go.khcu.ac.kr

Tư vấn tuyển sinh 02-959-0000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02-3299-8723

1월 가족사랑의 날 ESG 챌린지 1



여보! 어머님 덕에
안마봉 하나
넣어드려야겠어요.

- 참여대상 : 화성 거주 **2인 이상** 20가족 (신규가족 및 아빠-자녀 우선 참여)
* 가족당 2인 참여
- 진행일시 : **2025.1.22.(수) 1부 10:00~11:30(10가족)**
2부 19:00~20:30 (10가족) 중 *선택 1
- 진행내용 : 양말목을 활용한 안마봉, 도어벨 만들기
- 신청방법 :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참여가족 전원 회원가입 후 신청)**
회원가입-로그인-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
- 신청기간 : **2025.1.2.(목) 14:00~ 모집완료**
- 진행장소 : **유엔아이센터 4층 여성카페**
- 문의 : 070-8831-3469
- 활동작품 ▼도어벨 ▼안마봉



신청하러 가기



2025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교육]

한국어 말하기 (발음) & 가정통신문 활용 한국어 참여자 모집



| 모집개요

일 정	2025년 2~3월 (각 과정 12회기 진행)
장 소	각 가정/ 온라인 줌(zoom) 교육
대 상	화성시거주 결혼이민자(F-6)
신 청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QR 스캔후 신청) 회원가입>로그인>프로그램 신청>한국어 검색 후 해당프로그램 신청하기
신청일자	2025년 1월 10일(금) ~ 모집완료



| 과정안내

과정	시간	주요 내용
말하기A (초급, 중급)	2/3-3/12(월, 수) 10:00 ~ 12:00(2hr)	발음(자음, 모음)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 Book 1
말하기B (중급이상)	2/3-3/12(월, 수) 10:00 ~ 12:00(2hr)	발음(규칙)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 Book 2
가정통신문활용 한국어	2/4-3/13(화, 목) 10:00~12:00(2hr)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시간	MON	TUE	WED	THU	FRI	SAT
10:00~12:00	말하기A 말하기B	가정통신문 활용 한국어	말하기A 말하기B	가정통신문 활용 한국어		

한국어 교육 및 프로그램 신청 문의는 ☎070-8831-8618 로 전화주세요~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 소통하며 화합!

화성시, '문화더함공간 서로' 어울림마당 개최해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문화더함공간서로는 지난해 12월 15일 향남읍 소재 화성마을사랑방에서 '2024 문화더함공간 서로' 어울림마당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공동체 회원들과 내외국인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사업과 공동체 활동을 선보이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소통하며 화합하는 소중한 자리를 가졌다.

행사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방글라데시 전통춤 오프닝 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유공 표창, 영상을 통한 2024년 활동 보고, 축하공

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중언어 교육생들이 베트남어 합창, 우수시범, 중국 태국 네팔 전통춤 공연, 네팔 노래, 베트남 전통 타악기 트롱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어울림마당 행사는 2024년 문화더함공간 서로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지역 사회에 알리고 주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강화하는 매우 뜻깊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동체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统计厅发表“2024年移民者滞留实态及雇佣调查结果”

在韩国国内滞留的外国人超过156万人，创下历史最高纪录，而在韩国工作的外国人就业人数也首次突破了100万人。另外据调查外国就业者中一半左右的月薪为200万韩元左右。

来韩国工作的外国劳动者

韩国统计厅最近发表了“2024年移民者滞留实态及雇佣调查结果”，以今年5月为基准，15岁以上的国内常驻外国人有156万1000名，比去年增加了9.1%（13万名）。这是有史以来规模最大的一次。

就业者激增是因为今年获得“非专业就业（E-9）签证”的外国就业者为30万2000名，比一年前增加了3万4000名（12.6%）。

他们月平均工资水平在200万韩元以上~300万韩元以下的有48万9000名（51.2%），占比最多。其后依次为300万韩元以上（37.1%）、100万韩元以上~200万韩元以下（8.4%）。从产业领域来看，矿业和制造业最多，达46.1万人，批发零售·住宿·餐饮业（19.1万人）、事业·个体·公共服务业（14.4万人）等也超过10万人。

结婚移民者，在外同胞也创历史新高

常住外国人156万1000名中，在外同胞和结婚移民者、外国留学生等也创下了历史最高纪录。

与韩国人结婚的结婚移民者为12万2000名，1年内增加了1.7%，朝鲜族和高丽人等在外同胞为40万2000名，比1年前增加了4.1%。留学生也比去年增加了6.4%，达到20万人。拥有韩国永久居住权的中国、越南等外国国籍者达14.1万人，在1年内增加了7.6%。这比2012年的6万5000名增加了2倍以上。

拥有永久居住权的62.1%的外国人表示，今后有取得韩国国籍的计划。

生活满足度高，但语言是问题

当被问及外国人对韩国生活的满意度时，84.3%的人表示“满意”，比前一季度增加了3.9个百分点。在韩国生活中感到困难的方面中，回答“没有”（34.7%）的人最多，其后依次是语言问题（29.8%）、孤独（13.0%）、经济困难（9.3%）。其中语言问题比去年上升了5.1%，孤独感下降了3.9%。对于“在过去的一年里有没有受到过差别待遇”的问题，17.4%的人回答“有过”。在受到歧视的原因中，“出身国家”最多，占54.5%，其后依次为韩语能力（31.2%）、外貌（9.1%）等。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심사 평가 통과...국제안전도시 인증해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지난해 12월 20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최종 심사평가를 통과하며, 올해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안전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가 주관하는 안전도시 인증 제도로, 도시의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과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현재 화성시 포함 국내 30개 도시를 비롯해 전 세계 438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화성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득을 준비해왔으며 그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성장에 발맞춰 여러 분야에서 안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각종 안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풍수해 등 재난 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직 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인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다.

최종 심사는 지난해 1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 사무총장인 굴브란트 쉐베르크 심사단장을 비롯해 스웨덴의 레자 모함마디, 데일 헨슨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손상감시 체계 ▲교통안전 ▲자살 예방 ▲범죄폭력 예방 ▲재난 및 산업재해 예방 등 화성시 분야별 안전 정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현장 심사를 위해 화성시를 방문한 데일 헨슨 심사위원은 지난해 12월 20일 향남읍 하길리 소재 화원초등학교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구간, 화성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스마트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및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스마트 관제센터 지능형 시스템 운영 현장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화성시는 ▲거버넌스 ▲손상감시 ▲포괄적 손상예방프로그램 ▲취약계층 및 환경 ▲평가 ▲네트워킹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6개 인증 기준에 모두 부합해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굴브란트 쉐베르크 심사단장은 "화성시의 안전 정책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6개 인증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며 최종 심사 통과를 선언했다.

화성시는 지역사회의 안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의 기자



“한 해 성과, 직원·활동가와 나누다” 화성시가족센터, 2024년 성과공유회 ‘나눔한마당’ 개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2월 23일 푸르미르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2024년 성과공유회 ‘나눔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센터의 활동가들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더 발전적인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아이돌보미팀, 상담사레팀, 육아나눔팀, 역량강화팀, 특성화팀, 기획운영팀 등 다양한 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23년 여성가족부 전국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4관왕을 차지한 바 있는 화성시가족센터는 2024년에도 교육사업으로 전국 244개 가족센터 중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화성시가족센터가 한해 동안 이룬 열매는 여러분 한분 한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활동가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린다. 내년에도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직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시상식도 이어졌다.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사업 발전에 공헌한 직원과 활동가들이 화성시장상, 화성시의회의장상, 센터장상 등을 받았다.

이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땀과 노력을 격려하며 ‘센터 직원 및 활동가 인사나눔’이 진행됐다.

팀별 우수 및 자유주제 발표와 활동수기 발표도 이어져 한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2025년에 센터 이전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가족센터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

화성시의 위탁을 받아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화성시가족센터는 시민들의 가족건강성 증진과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가족복지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 공무원 대상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실시 인식개선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일 화성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시작은영화관에서 진행된 이 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 및 문화다양성의 이해도 제고, 공존과 조화의 가치 실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 KBS공채 개그맨 출신 정철규 강사가 ‘다문화가 이긴다’라는 주제로 유익하고 유쾌한 강의를 진행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국제결혼 관련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 ‘다우렌의 결혼’을 감상했다. 화성시는 주민뿐 아니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이주배경을 지닌 대상자(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이주배경청소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매년 추진하면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은 “화성시는 많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 및 외국인주민 다양한 유형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선형적으로 함양하여 백만화성 특례시에 걸맞은 적극 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 안전 교육 실시해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올바른 개인형 모빌리티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3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PM 및 전기자전거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과 헬멧 미착용·1기체 다인승 탑승 등 전기자전거의 부적절한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운행인식 개선 및 보행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의 정의, 법령, 조작방법, 도로주행 방법 등 이론 교육을 진행한 뒤 장애물 코스 체험 주행을 통한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화성시는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교육 학교 수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화성시 AI전라과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올바른 개인형 모빌리티 문화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거처대 설치 확대와 관련 홍보·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